

碩 士 學 位 論 文

쌍둥이마을과 장수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7年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 開發 및 管理 專攻

金 亨 鎰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朴 時 翼

쌍둥이마을과 장수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Feng Shui
in Twins' Village and Longevity Village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不動產 開發 및 管理 專攻

金 亨 鎰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朴 時 翼

쌍둥이마을과 장수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Feng Shui
in Twins' Village and Longevity Village

위 論文을 不動産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産大學院

不動産 開發 및 管理 專攻

金 亨 鎰

金亨鎰의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정함

2006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 目 次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
제 2 장 풍수지리이론과 철학적 배경	4
제 1 절 삼신오제	4
제 2 절 음양오행과 사상	5
제 3 절 태극	6
제 4 절 삼재와 팔괘	7
제 5 절 하락이수	9
제 3 장 지세 및 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11
제 1 절 풍수지리이론	11
1. 용(龍)	11
2. 혈(穴)	24
3. 사(砂)	26
4. 수(水)	34
제 2 절 택리지 고찰을 통한 지세 및 지리적 특성	40
1. 지리	40
2. 생리	42
3. 인심	43
4. 산수	43
제 3 절 한국의 지세	44
제 4 장 풍수지리이론의 현대적 해설	47

제 1 절 현대풍수의 개념	47
1. 음양에 의한 해석	47
2. 풍수이론의 적용개념	49
3. 기의 개념과 실체	51
4. 지기와 생기	52
5. 지자기	54
6. 동기감응	56
제 2 절 입지선정방법	58
1. 배산임수	60
2. 전저후고	61
3. 전착후관	61
제 3 절 형태	62
1. 형태와 기	62
2. 형태와 길흉	63
 제 5 장 쌍둥이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	65
제 1 절 전남 여수 중촌마을	65
1. 마을의 역사와 유래	65
2. 지리적 분석	66
3. 마을의 생활습관	69
4. 산모의 연령분포	71
5. 가옥의 구조	73
제 2 절 충남 아산 산동마을	75
1. 마을의 역사와 유래	75
2. 지리적 분석	76
3. 쌍둥이마을 지형의 공통점	77
 제 6 장 장수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	79
제 1 절 전남 구례 백운천마을	79

1. 마을의 역사와 유래	79
2. 통계 분석	80
3. 구례의 지리적 특징	82
4. 백운천마을의 풍수지리적 분석	85
제 2 절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마을	89
1. 마을의 역사와 유래	89
2. 통계분석	92
3. 안골마을의 풍수지리적 분석	93
 제 7 장 결론	 96
제 1 절 연구의 요약	96
제 2 절 한계점 및 제언	99
 참고문헌	 101
 ABSTRACT	 103

- 그림목차 -

<그림3-1> 순릉과 역릉	18
<그림3-2> 용의 결혈 과정	24
<그림3-3> 혈의 형태에 따른 분류	26
<그림3-4> 좁은수구와 넓은수구	36
<그림3-5> 양파, 역수, 산수동거의 형태	37
<그림3-6> 백두대간도를 통하여 본 한국의 지세	44
<그림5-1> 전남 여수 소라면 중촌마을	65
<그림5-2> 전남 여수시 중촌마을 전경	67
<그림5-3> 중촌마을 가구의 구조	67
<그림5-4> 전남 여수 중촌마을의 조산인 고락산	68
<그림5-5> 송신탐을 세운 쌍봉산의 모습	70
<그림5-6> 충남 아산 산동마을	75
<그림5-7> 충남 아산 산동마을의 조산인 금마산	77
<그림6-1> 전라남도 구례군	83
<그림6-2> 전남 구례 백운천마을의 사진사	85
<그림6-3> 전남 구례 백운천마을의 산세	86
<그림6-4> 백운천마을의 구조	88
<그림6-5>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마을	89
<그림6-6> 안골마을의 미녀산	94

- 표목차 -

<표4-1> 전통풍수와 현대적 풍수의 비교	48
<표5-1> 산모의 성씨에 따른 쌍둥이 분만 수	72
<표5-2> 1880년 초 부터 1980년 초까지의 연령별 연령별 쌍둥이 분만수	73
<표6-1> 전국 장수마을 현황	80
<표6-2> 백운천마을의 인구분포	81
<표6-3> 안골마을의 인구분포	92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목적

풍수지리는 오랫동안 쌓아온 땅에 대한 깨달음과 자연에 대한 세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지혜로, 기(氣)라는 우주적 환경의 흐름에 따르면서 지리, 기후 등의 환경요인이 인간의 거주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미시적으로 보면 주거입지의 선택을, 거시적으로 보면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설정을 설명하는 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은 생존 또는 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자기가 생활 할 터전을 찾아왔다. 보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좋은 조건을 갖춘 땅을 차지한 부족이 고대국가로 계승, 발전하였다.

이처럼 풍수지리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 국토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 사상이다. 그러나 일제 식민시대 부터 한국의 민족사상을 말살시키기 위한 일본의 횡포에 의해 풍수지리사상이 심히 왜곡되거나 미신화된 경향으로 오늘날 조상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습득한 자연에 대한 지혜와 가치를 말하는 풍수지리사상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거나, 미신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동양의 전통 풍수지리학을 연구 발전시켜 여러 분야에 실용화하고 있다. 특히 양택 분야에서는 큰 발전을 하여 동양으로 역수입되는 실정이다.

오랜 세월 자연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풍수지리는 경험과학이라 할 수 있다. 또 자연지리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동양적 사고의 지리학이자 환경교과서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성격이나 진위를 막론하고 신라이후의 역사상 한국 민족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상임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이러한 풍수지리사상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지형과 지세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사

용하던 예전과 달리 인구증가, 생활수준변화, 산업화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의 이용이 달라진 지금 고전적인 풍수사상은 현대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 풍수지리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풍수지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한다하여 고전 풍수사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지리사상의 기본 이론과 풍수지리의 현대적 해석방법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풍수지리적 특성을 고찰하며, 풍수지리사상의 핵심이 되는 지형, 지세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땅의 지형과 지세가 인간의 주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 출산이 많은 쌍둥이 마을과 장수마을 등 지세의 영향으로 마을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실제 답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과 지역의 출산율 및 쌍둥이 출산율 등 선행문헌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지세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타 지역보다 쌍둥이 출산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 중 출산율이 높은 전남 여수의 중촌마을과 충남아산의 산동마을을 대상으로 주변 지형과 지세분석을 통하여 마을의 지형, 지세가 쌍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인 장수고장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의 백운천마을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안골마을을 직접 현장 답사하여 고을의 유래와 지세, 생활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장수의 원인과 지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풍수지리학 이론을 근거로 하여 지세의 영향으로 마을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실제 답사하여 주민인터뷰를 통한 방법과 선행연구자의 문헌조사를 통한 방법과 관련서적,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세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확인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쌍둥이마을과 장수마을의 풍수지리적 위치가 그 지역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2 장 풍수지리이론과 철학적 배경

제 1 절 삼신오제¹⁾

한반도에 살던 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강력한 독립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느님을 숭배하며 높은 산 정상에서 제사를 지냈다. 하느님은 조물주로서 모든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는 유일한 신이다.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삼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곧 삼신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역할을 한다. 삼신사상에서는 유교에서 주장하는 현실세계와 불교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신선사상에서 주장하는 인간과 영혼의 합일 사상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삼신이란 하느님의 조화(造化), 치화(治化), 교화(敎化) 등 세 가지 능력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오제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방위에서 하느님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신(分神)을 말한다. 즉 동제(東帝), 서제(西帝), 남제(南帝), 북제(北帝), 중제(中帝)를 뜻한다.²⁾ 이 오제는 각각의 고유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동제는 푸른빛의 기운을 갖고 있어 청제(靑帝)로, 서제는 백색의 기운을 갖고 있어 백제(白帝)로, 남제는 붉은 기운을 갖고 있어 주제(朱帝)로, 북제는 검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현제(玄帝)로, 그리고 중제는 노란색의 기운을 갖고 있어 황제(黃帝)로 구분한다. 오제는 수성과 화성, 목성, 금성, 토성 등 5개별에 각각 분산, 배치하기도 한다.

오제 중에서 청제는 하늘의 동쪽을 관장하여 태양을 떠오르게 하며,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주제는 하늘의 남쪽을 관장하여 태양이 뜨겁게 빛을 발산하도록 하며, 동쪽에서 탄생시킨 여러 생명체를 사방으로 분산시켜 활발하게 살도록 한다. 백제는 하늘의 서쪽을 관장하며, 태양을 저물게 하고 활발한 생명체들에게 죽음을 준다. 북제는 하늘을 북쪽을 관장하여 태양이 기운을 감추는 동시에 백제에 의해 죽음에 이른 모든 생명체가

1) 박시익, ‘風水地理說 發生背景에 關한 分析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70~79

2) 박시익, 전제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p.110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황제는 하늘의 중앙을 관장하는 동시에 동서남북 여러 신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게 한다.³⁾

오제는 이처럼 지상의 여러 가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생명체의 수명이 다한 후 다시 그 생명력을 거두어들이는 등 일체의 생명 활동을 관장한다.

제 2 절 음양오행과 사상

주역은 자연의 구성과 변화의 형상을 음양과 오행의 구별로서 해석하는 형이상학적 철학이론이다. 그러므로 주역은 바로 음행오행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양문화의 대부분이 음양오행설과 연관성이 있다. 풍수지리설의 목적상 가장 핵심적 이론인 생기론은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기로서 상호 연관시켜 해석하게 되는데, 이 기의 본질적 해석은 바로 음양과 오행의 이론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설의 이론은 음양오행설에 의하여 학설로서 체계를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풍수이론의 이론적 체계를 구성한 음양오행설은 음양설과 오행설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론의 합성어로서, 음양설은 자연의 현상에 대한 음, 양의 대립적 요소에 의한 형이상적 요소이며, 오행설은 자연의 근본적 구성을 수, 화, 목, 금, 토의 다섯 가지 기로서 해석하는 사유체계로 삼는다. 음양설과 오행설의 근본 발생은 서로 같지 않으나 자연의 현상에 대한 상호 관련적체계로 그 이론이 서로 조화되어 더욱 완전한 철학 체계를 이루었다⁴⁾.

그러므로 음양오행설이 풍수지리설의 이론적 체계를 성립시키고 있는 만큼, 음양오행설의 발생 과정과 그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풍수지리설의 이

3) 이세인, 영남지역 명문고택의 풍수지리 고찰,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11~12

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론적 규명이 가능하게 된다.

사상은 음양의 양의가 거듭 음양작용을 일으켜 4가지의 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름을 태양, 소음, 소양, 태음으로 부른다. 태극이 일변하여 생긴 것이 음양이요, 재변하여 생긴 것이 사상이다. 양의 본으로 하여 양의 분화 된 것이 태양이요, 음으로 변화 된 것이 소음이다. 음의 체로 하여 음으로 변화된 것이 태음이고 양으로 분화된 것이 소양이다.⁵⁾

태양과 태음은 각각 노양과 노음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껍을 뽑아 점을 봄에 있어서, 그 변화 작용을 볼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양의는 두 가지의 양태인데 비하여 사상은 양의보다, 한 단계 구체화된 상으로, 천의 일월성신과 지의 산천초목과 인의 이목구비가 사상의 이치이다. 양을 바탕으로 하여 양으로 작용함이 태음이요, 음을 바탕으로 하되 양으로 작용함이 소양이다.

사상이라는 것은 만물의 생명현상이 하늘과 땅 사이에 고정되어 있는 동서남북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형상을 보면 태양을 건설하여 태음은 공허하고 유순하다. 또 소음은 내실 외허하여 성장하고 소양은 내허외실하니 수축한다. 그러므로 소음은 봄이고 아침이다. 태양은 여름이고 낮이며 소양은 가을이고 저녁이다. 태음은 겨울이고 밤이다.

제 3 절 태극

태극이란 삼라만상의 본원으로서 만상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모두 태극과 연유된다. 태극에는 만물을 함유 한다는 공간적인 의미와 처음부터 끝이라는 시간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⁶⁾

5) 이창행, 주거계획에 있어서의 풍수사상의 적용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57

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태극의 법칙은 혈심을 중심으로 한 원에서의 위치 또는 내용의 방위상 행로 등으로 길흉을 판별하는 법칙이다. 이 태극에서 원둘레를 8등분, 12등분, 24등분, 60등분 등으로 분할하여 선천팔괘, 후천팔괘, 12지지, 8간과 4우 및 12지지를 합한 24개, 60갑자 등을 배정한다. 이것으로 내룡, 입수, 득수, 파구 등과 혈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사를 관찰한다.

태극의 공간적인 의미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돌고 있는 큰 행성이나 자그마한 전자가 빠른 속도로 끝없이 순환하며 일정한 텅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로부터 믿어 왔듯이 원자는 딱딱하고 견고한 입자들이 아니라 극도로 미세한 입자인 전자들이 전기력에 의해 핵에 묶여져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광대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말하자면 대우주나 소유주의 모든 모습이 태극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하계나 원자와 인간의 모습이 그 크기와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를 뿐 모두가 똑같이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극을 시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존재하는 것들의 순환하는 시간이 짧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짧고, 긴 것은 헤아릴 수 없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순환의 모습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태극은 무한한 공간성과 시간성을 동시에 가진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것을 적용하면 그것에 맞고 작은 것에 적용하면 그것에 맞고 작은 것에 적용하면 또 그것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주가 비록 큰 것이나 태극 안에 있고, 전자가 비록 작은 것이나 태극 안에 있는 것이다. 즉 태극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 법칙인 것이다.

제 4 절 삼재와 팔괘

삼재는 삼극이라고도 하며,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세 가지 바탕 재질(才質), 즉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대표하여 사람을 뜻하고 있다.⁷⁾ 임 삼재

7) 이창행, 전제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58

의 도가 지극한 묘용을 갖는다. 하여 삼극이라고도 일컬으며, 역에서는 임삼재의 원리에 의해 팔괘가 생겨나게 된다.

역학은 천(天), 지(地), 인(人) 3재론이다. 역은 하늘과 땅을 인간을 논하며 그 논의의 결과를 역리, 역도로 나타낸 것이다. 삼재라 하지만 단순히 천(天), 지(地), 인(人)을 의미하지 않고 각각의 지리를 삼재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삼재를 삼극이라고도 한다. 삼극은 삼재가 각기 하나의 태극임을 의미한다. 천도의 음양론, 지도의 강유론, 인도의 인의론을 통하여 규명된 이치를 우리는 태극이라 한다. 이 태극은 대상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다. 사물에 있어서는 리, 인간에 있어서는 성, 하늘에 있어서는 도 또는 명으로 나타난다. 역이 삼재, 삼극론이라는 것은 곧 음양인의론을 통하여, 리, 성, 명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天), 지(地), 인(人) 삼재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진리의 탐지 자는 인간이다. 천과 지는 인간에게 진리의 원칙인 동시에 그것의 구현, 실천의 무대다. 따라서 삼재라 하더라도 천과 지는 하나로 묶여 자연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재론은 인간과 자연의 문제로 정리된다.⁸⁾

태극이 일변하여 양의가 되고 양의가 재변하여 사상이 된다. 사상에서 더 나아가 삼변을 이룬 것이 팔괘이다. 이 과정을 삼변성도라고 한다.

분화는 일매생이나 과정을 삼변으로 완성한다. 이것을 삼재의 법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풍수에서 기본으로 삼는 역은 음양과 삼재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⁹⁾

팔괘의 세 효는 삼재의 원리에 따라서 정해진다. 생서의 차서는 천(天), 지(地), 인(人)으로 나타나고 현상의 위차는 천 인 지로서 차서는 체가 되고 위차는 용이 된다. 또 파서는 시간적 의미이고 위치는 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다.

건은 하늘(天)과 아버지(父)를 뜻하고,

태는 연못과 막내딸(少女)을 뜻한다. 진은 천동(雷)과 큰아들(長男)을 뜻하고, 손은 바람(風)과 큰딸(長女)을 뜻한다. 감은 물(水)과 가운데 아들(中男)을 뜻하고, 간은 산(山)과 막내아들(少男)을 뜻하고, 곤은 땅(地)과

8) 광신환, 주역의 이해, 서광사, 1990, p.307

9) 이창행, 전계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58

어머니(母)를 뜻한다.¹⁰⁾

팔괘에 나타난 인적(人的)구성을 보면, 부부(夫婦)와 삼남(三男), 삼녀(三女)로 이루어진다.

양이 세 번 변하여 건 괘가 되고 음이 세 번 변하여 곤 괘가 이루어지고, 이 건곤이 서로 변화를 일으켜 팔괘를 구성한다. 건괘기 맨 아래 양호가 곤괘기 맨 아래 자리에 들어가서 진괘가 되고, 곤괘의 초효가 건괘의 초효 자리에 들어가니, 손괘가 된다. 이러한 식으로 건곤이 변화하여 팔괘를 구성하게 되고 이것을 부모가 3남 3녀를 거느린 가정에 비유하기도 하고, 대자연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한다.

팔괘방위도 - 팔괘는 형상의 위치를 자연의 모습에 맞추어 놓은 것이 팔괘방위도라 한다. 팔괘방위도에는 복희선천팔괘도와 문왕후천팔괘도가 있다. 전자는 지구 위의 물상들의 공간적 위치에 대해 복희씨가 그린 것이고, 후자는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순환하는 변화에 대해 그린 것이다.

제 5 절 하락이수

하락이수는 하도와 낙수의 원리와 수의 성격을 총칭하는 말로 하도와 낙서는 역의 근본이 되는 원리를 그림과 글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주 및 풍수지리, 한의학 등등 동양의 모든 상수리를 근거로 하는 학문의 기본이다.¹¹⁾

하도는 복희씨가 다스릴 때 황하에서 나온, 상제는 용의 형상이며 하체는 말의 형상을 지닌 용마의 등에 씌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그림이며, 낙서는 우 임금의 홍수를 다스릴 때 낙수에서 나온 신령스러운 거북이의 등에 쓰여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글이다. 물론 역의 원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므로 하도, 낙서는 역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 후의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10) 이창행, 전계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59

11) 이창행, 전계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60

하도의 극수는 10으로서 선천의 이치가 있고 낙서의 극수는 9로서 후천의 이치가 있다. 사람도 태중에 있을 때에는 10개의 구멍이지만 출생 후에는 배꼽이 막혀서 9개가 된다.

모든 만물이 계속 순환하기 위해서는 생성과 소멸의 상대적인 힘이 존재해야 하듯이 하도와 낙서는 그러한 상대적인 힘인 것이다. 생과 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밤과 낮이 교차하는 것은 같은 순환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하도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정해진 법칙에 의해 생성 변화 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의 순환이 땅 위에 있는 물이 식물이나 사람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 먼지등과 응결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순환의 모습과 일치하고, 겨울에는 북쪽이 기운이 강해 물이 응결하여 추위가 있고, 봄에는 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이 자라나면서 물을 팽창시키고, 여름에는 각각의 생명들이 꽃을 피워 수정을 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고, 가을에는 그 잉태가 땅에 떨어져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월동하는 모습과도 일치하고, 사람으로 엄마의 배 안에서 세상에 태어나 어느 정도까지 길이 성장을 하며, 그 이후에는 부피성장을 하고 말년에는 수축하여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과도 일치하고, 사회성으로 보면 생명이 태어나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어진 마음을 느끼며, 커서는 스스로 예절을 알고 나이가 들면서 믿음과 신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년에는 지혜로워 지는 모습과도 같이 하도의 응용은 끝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도는 왼쪽으로 돌아가며 서로 상생을 하고 낙서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서로 상극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응용한 것이 사주명리학과 한의학, 풍수지리 등이다. 사주와 한의학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운명을 판단하거나 병을 진단하여 상호 균형이 무너진 부분을 보충해 주거나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을 조화시키는 판단이나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가령 목이 약한 사람은 한의학적으로 진단하면 간장의 기운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치료 방법은 하도의 원리에 의해 목을 생해주는 수에 관한 약재를 쓰거나, 낙서의 원리에 의해 목을 극하는 금을 억제하는 약재를 병행하여 쓸 수가 있다.

제 3 장 지세 및 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제 1 절 풍수지리이론

1. 용(龍)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용(龍)’이란 산과 능선을 말한다. 지세의 기운을 분석하는 작업은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용의 기운을 해석하는 작업으로 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혈(穴)을 찾을 수 있으며, 지세의 기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풍수에서 산과 능선을 용이라고 말한 것은 산과 능선이 갖고 있는 신비하고 강한 기운 때문이다.

지세를 분석할 때 산봉우리의 기운만을 분석할 때는 ‘봉’이라고 부르지만, 산봉우리를 비롯해 전체적인 능선의 기운을 분석할 때는 ‘용’이라는 용어를 쓴다. 즉 용은 산맥의 표면적인 형태이며, 기운은 맥 속에 흐르는 힘이다. 따라서 지세를 분석하는 것은 용을 통해 흐르는 기운의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다.

산 정상에서 출발한 용이 혈에 이르기까지는 직선인 형태와 곡선인 형태의 두 가지가 있다. 직선인 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약간의 변형을 갖고 있다.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운이 기울지 않으며, 중심을 갖고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직선적 형태의 용은 ‘중심룡’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 곡선적인 용이란 산 정상에서 혈까지 커다란 곡선을 이루고 있는 용으로, 곡선 형태에 따라 좌선룡(左旋龍), 우선룡(右旋龍), 혼합곡선룡 등으로 구분된다.

‘좌선룡’은 주봉에서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마치 사람의 왼쪽 팔과 같이 좌측에서 시작해 우측으로 곡선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우선룡’이란 주봉으로부터 연결되어 내려온 용이 우측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곡선의

방향이 변화되면서 연결되는 용을 말한다. ‘혼합곡선룡’은 산의 주봉으로부터 연결된 용이 처음에는 좌선을 한 후에 다시 우선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좌선과 우선의 변화를 갖고 있는, 즉 ‘S’자 같은 형태를 이룬 용을 말한다.

혈은 중심룡이나 곡선룡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혈을 이루고 있는 지세에서 혈은 중심룡에, 청룡은 좌선룡에, 그리고 백호는 우선룡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1) 용의 앞과 뒤

용은 산의 봉우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능선을 이루며 평탄한 들판을 향해 점차적으로 낮게 내려가기도 하며, 물이 있는 쪽을 향해 내려가기도 한다. 용의 형태에 있어서 앞면은 비교적 지면이 균일하고 안정적이어서 아름답고 밝은 광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용의 뒷면은 험한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지면이 안정되지 못하고, 땅색도 어둡고 음산하다.

용의 움직이는 형태에 있어서 좌선룡일 경우에는 용에서 내려다봤을 때 오른쪽이 앞면이 되며, 왼쪽이 뒷면이다. 반대로 우선룡일 경우에는 오른쪽이 뒷면이고 왼쪽이 앞면이다.

지세의 기운을 분석할 때는 용의 앞과 뒤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용의 앞은 생기가 있어서 명당을 이룬다. 따라서 집터를 선정할 때는 용의 앞을 고르는 것이 좋다. 용의 뒷면은 흉가가 발생하기 쉽다¹²⁾.

용의 전면과 후면은 마치 종이의 앞뒤와 같이 거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그러나 햇빛이 앞면으로 비칠 때 뒷면은 음지가 되는 것과 같이, 명당은 용의 앞면에서만 이루어진다. 비록 4~5미터의 작은 능선에 의해 구분되지 만, 그 기운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2) 용의 3격과 4체형

1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용은 모두 각각의 기운을 갖고 있어 생기를 만들어 주는 용이 있는가 하면, 생기가 부족한 용도 있다. 그러므로 용에 따라 생기의 발생에 차이가 있으므로 생기를 만들어 주는 용을 찾는 일이 명당을 찾는 지름길이다.

용의 형태와 기운은 세 가지 품격과 네 가지의 체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품격으로 구분하면, 크게 주인격과 보조격, 배반격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산의 품격에서 주인격과 보조격, 배반격 등으로 구분, 해석한 것과 같다.

‘주인격’ 용은 주인격 산과 같이 중심적인 기운이 왕성하며, 용의 변화가 아름다워 혈을 이루는 용을 말한다. 주인격 용 옆에는 반드시 보조격 용이 있어서 주인격 용의 기운을 보조하는데, 명당 지세에서 주산과 주룡은 주인격 용에 해당한다. 주인격 용은 주산으로부터 가장 큰 힘을 갖고 내려오는 용으로, 주변 용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만일 주변에 주인격 용보다 강한 용이 있을 경우에는 주인격 용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주인격 용이 있는 지세에서는 명당이 형성되므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인물이 배출된다.

‘보조격’ 용은 자체적인 기운이 부족해 혈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인격 용에 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격 용은 명당을 향해 마치 절을 하는 자세로 공손하게 마주 보고 있는데, 명당 지세에서 청룡이나 백호는 보조격 용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즉 청룡이나 백호는 자체적으로는 혈을 만들지 못하지만 주룡에 생기를 보내 혈을 만드는 작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조격 용이 있는 지세에서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큰일을 이룬다.

‘배반격’ 용은 용의 후면, 즉 등을 보이고 있는 용을 말하는데, 자신의 기운을 명당 쪽으로 보내지 않으면서 명당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이런 지세에서는 이웃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고, 따라서 인심이 좋지 않다. 큰 인물도 배출되지 않는다.

용의 체형은 용에 흐르는 기운을 청탁(淸濁)과 홍(凶)의 성질로 해석하기 위해 구분하는데, 용의 단면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강체·중체·약체·병체 등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마찬가지로 산의 4체형적 구분과 기본 개념이 같다.

‘강체’는 한옥의 수 기왓장을 엮어 놓은 것처럼 둥그렇게 솟아오른 형태로, 좌우 균형이 알맞고 적당하게 탄력을 이룬 능선을 말한다. 강체의 용은 깨끗하고 강하며, 여유 있는 기운이 통과하여 혈과 명당을 이룬다.

‘중체’는 단면의 형태로는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강체보다는 힘의 여유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중체의 용에는 깨끗한 기운이 흘러 혈과 명당을 이룬다.

‘약체’는 단면의 형태에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으나, 좌우 경사면에 근육이 부족하여 뽀족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기운이 깨끗하지만 강체나 중체에 비해 기운이 약하다.

‘병체’의 용은 단면 형태에서 좌우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한 형태를 이루는데, 정상적인 변화가 부족해 탁한 기운이 흐른다.

3) 용의 변화와 발복 기간

주산의 기운이 혈과 명당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산과 혈 사이의 용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기운이 통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나무뿌리에서 나뭇가지의 꽃에 이르기까지 줄기와 가지를 통해 일관된 기운이 흐르는 것과 같다.

주산에서 출발한 용의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용의 중간 중간이 일정한 형태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산봉우리에서 혈까지 여러 형태로 변화되면서 기운을 전달하는 통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용의 형태가 변화되어 있으면 기운이 통하는 생룡이며, 용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기운이 없는 용이거나 죽은 용, 즉 사룡(死龍)이 된다. 따라서 용의 변화 형태로 기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용의 진행은 그 방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먼저, 용이 마치 지(之)자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좌우진행형’이라고 하는데, 뱀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구불구불 움직이는 형태와도 비슷하다. 사람의 걸음걸이도 발자국만 보면 좌측과 우측으로 구불구불 변화하여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대략 60센티미터 폭의 발자국을 그리며 나가는 사람을 건

강한 사람으로 본다. 건강한 용의 걸음은 15미터를 한 걸음, 즉 한 폭으로 본다. 따라서 15미터마다 좌측과 우측에 발자국과 같은 형태의 변화를 이루며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변화 과정으로 본다.

용에 따라서는 걸음의 폭이 20미터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 만일 30미터를 넘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죽은 용으로 해석한다. 좌측과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이루는 변화 각도는 30도가 대표적이며, 힘이 강한 용 일수록 변화 각도가 커 90도를 이루는 것도 있다. 반면, 힘이 약한 용은 30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사룡인 경우에는 변화 각도가 없다.

용이 솟아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는 형태인 ‘상하진행형’도 있다. 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평소 깊은 바다 속에서 사는 용은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 하늘로 솟아올라 가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전해진다. 단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므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솟아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상하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산의 능선이 높았다 낮아지고, 다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형태를 용이 승천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상하운동을 진행하는 용의 기운을 강하게 본다.

또 용이 내려오는 도중 하나의 마디에서 좌측과 우측, 그리고 전면의 세 방향으로 뻗어 나가 내룡까지 합해 전체적으로 십자 모양을 이루는 것도 있다. 십자맥에서 주룡은 직선으로 내려가고 두 개의 맥은 좌측과 우측으로 동시에 뻗어 나가 백호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십자맥은 용의 기운이 매우 강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래서 십자맥을 왕기(王氣)를 갖고 있는 용으로 해석하여, 왕이나 큰 재벌이 나온다고 본다.

주산과 혈 사이에 있는 주룡은 개장(開帳)과 천심(穿心)의 변화를 이루게 된다. ‘개장’이란 장막을 병풍과 같이 넓게 펼친다는 뜻으로, 산이 병풍과 같이 주산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넓게 펼쳐진 것을 뜻한다. 개장된 산의 형태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좌우로 넓게 펼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데, 좌우 양쪽의 날개는 동일한 정점에서 출발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정점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이때 동일한 지점에서 좌우 양날개가 출발한 경우에는 십자맥이 되어 더욱 강한 혈을 이루게 된다.

‘천심’이란 주산의 기운이 혈에 이르기까지 맥이 통하는 과정을 말하는

데, 주산의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봉의 기운이 강력해야 하며 동시에 생룡이어야 한다.

용의 변화에 따라 박환(剝換)과 과협(過峽)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박환’이란 강하고 험한 용이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하며, ‘과협’은 용으로 관통하는 기운이 혈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하는 목과 같이 가늘고 강한 용을 말한다. 용의 형태가 바뀌면 기운의 종류도 강한 기운으로부터 생기로 변화되며, 과협에는 강한 기운이 밀집하여 통과하므로 마치 기운을 묶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속기(束氣)’라고도 한다.

용은 산의 봉우리를 뒤로하고 낮은 지역을 향해 내려가는 성질을 갖고 있고, 마디에서 받쳐 주는 힘의 진동에 의해 앞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때 뒤에서 받쳐 주는 용을 ‘지각(枝脚)’, 혹은 ‘후장(後杖)’이라고 한다. 이 지각의 크기에 따라 용의 힘이 결정되는데, 큰 지각을 갖고 있는 용은 강한 힘으로 전진하게 되며, 작은 지각을 갖고 있는 용은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약한 용이 된다. 지각은 청룡이나 백호가 되기도 하는데, 지각이 하나의 봉우리를 일으킨 후에는 주룡으로 변화되어 혈을 이루기도 한다.

이상적인 생룡은 평균 15미터마다 한 절(節)을 이루고 있다. 절의 수는 곧 발복 기간을 의미하며, 한 절의 발복 기간은 30년이다. 절은 바위나 새로운 작은 가지로 마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혈에서 주봉까지의 생룡 길이가 45미터이면 3절이 되며, 300미터이면 20절이 된다.

그리고 혈에 연결된 용의 길이가 3절이면 90년 동안의 발복 기간을 의미한다. 만일 용이 중간에서 끊겼다면 혈에서부터 끊겨진 곳까지의 절의 수를 세어 발복 기간을 계산하는데, 끊어진 이후의 용에 대해서는 발복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각 산마다 절의 길이는 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혈에 연결된 용의 절의 수는 현지에서 따져 봐야 한다.

4) 용의 종류

(1) 생룡(生龍)과 사룡(死龍)

생룡에는 생기가 통하고 있어서 혈을 이루고 있는 반면, 사룡에서는 생

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명당은 생룡에서만 이루어진다. 생룡과 사룡은 형태로 구분하는데, 지(之)자와 같은 변화를 하거나 상하운동하는 변화를 이루고 있으면 생룡으로 보고, 변화가 없이 평평짐하게 퍼져 있으면 사룡으로 본다. 생룡의 흙은 밝고 생기가 있는 반면, 사룡은 푸석푸석하여 탄력이 없고 기운이 없으며 죽은 색을 갖고 있다.

(2) 정룡(正龍)

용이 산봉우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변화가 아름다운 것을 정룡 혹은 주룡(主龍)이라고 한다. 정룡은 혈을 이루는 용으로서, 주봉에서 혈까지 직접 연결되어 ‘내룡(來龍)’이라고 한다. 주룡이 생기를 발하며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점에서 좌측과 우측에 작은 용을 만들며 진행해야 한다.

(3) 간룡(幹龍)과 지룡(枝龍)

나무에 줄기와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용에도 간룡과 지룡, 작은 가지룡 등이 있다. 간룡이란 백두산·태백산과 같이 거대한 산맥에 의한 용으로, 거대하고 과격한 용을 말하며 ‘원룡(原龍)’이라고도 한다. 지룡이란 간룡으로부터 뻗어 나온 용을 말하며, 작은 가지룡은 지룡에서 다시 출발한 것을 말한다.

용의 형태에 의해 간룡은 대룡(大龍)으로, 지룡은 중룡(中龍)으로, 작은 가지룡은 소룡(小龍)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대룡은 능선의 높이나 좌우 폭이 넓은 용을 말하며, 많은 기운을 발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중룡과 소룡은 높이나 좌우 폭이 작다. 대룡은 단면의 길이가 폭 30미터, 높이 20미터를 넘는 용이며, 중룡은 폭 20미터, 높이 10미터 이상 20미터까지, 소룡은 폭 10미터, 높이 10미터 미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전선 굵기에 따라 전류의 양이 각각 다르게 흐르듯, 용의 단면적에 따라서 지기가 흐르는 양도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간룡은 바다와 같이 큰 물이 있는 쪽으로 흘러 내려가며, 지룡이나 작은 가지룡은 이와는 반대로 강물을 등지고 평탄한 들판을 향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또 꽃이 줄기에 피지 않고 가지에 피듯, 명당도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간룡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들판을 향해 내려가는 지룡이나 작은 가지룡에 이루어진다.

(4) 순룡(順龍)과 역룡(逆龍)

일반적으로 용은 산의 높은 봉우리에서 시작하여 점차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시작하여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형태의 용을 순룡이라 한다. 반대로 역룡은 높은 곳에서 점차 낮아지면서 다시 높이 솟아올라 역봉을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순룡이 있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순한 마음을 갖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 반면에 역룡이 있는 지역에서는 하극상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림3-1> 순룡과 역룡¹³⁾

(5) 병룡(病龍)과 결항사(結項砂)

용의 형태가 좌우 균형을 이루지 못했거나, 좌우상하 변화가 부족한 것을 병룡이라고 한다. 병룡이 있는 지세에서는 병적인 기운이 통해 불구자가 나오게 된다. 결항사는 용이 변화 없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서 끝부분이 둥글게 솟아올라 있어 마치 목을 매고 죽어 축 늘어진 시신을 놓힌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산을 말한다. 이런 지세에서는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

1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5) 용세(龍勢) 12격(格)

용의 기운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대표적인 열두 가지 기운을 ‘용세 12격’이라고 한다.

이 12격 중에는 왕룡·반룡·은룡·독룡·비룡·회룡 등 여섯 가지의 생룡이 있으며, 쇠룡·광룡·천룡·편룡·기룡·직룡 등 여섯 가지의 사룡이 있다.

(1) 왕룡(王龍)

강하고 밝은 기운을 발한다. 강체의 용에서 이루어지며, 큰 혈과 대명당을 이루는 용으로 단면이 좌우 균형을 이루어 상하 변화가 아름답다. 용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다.

(2) 반룡(盤龍)

용의 기운이 둥글게 회전하는 형태를 이루며, 뱀이 둥글게 꼬아리를 튼 형태로도 비유된다. 혈과 명당을 이루는 생기를 갖고 있다.

(3) 은룡(隱龍)

일반적인 용은 지면보다 높이 솟아올라 눈으로 쉽게 구분되는 반면, 은룡은 지상으로 솟아오르지 않고 땅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은룡은 지면 아래에서 바위나 흙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혈과 명당을 이루는 기운이 있다.

(4) 독룡(獨龍)

용의 진행 과정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지가 나오지 않고 중심적인 한 가닥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이 지세에서는 대대로 독자가 출생하게 되는데, 지세에 따라 명당을 이루기도 하지만 주변 지세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사룡이 된다.

(5) 비룡(飛龍)

좌우, 상하의 움직임이 많은 용을 말한다. 강한 생기를 이루고 있어서 혈과 명당을 이룬다.

(6) 회룡(回龍)

주봉으로부터 출발한 용이 진행하는 동안, 점차적으로 회전하여 주봉을 마주 바라보는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세를 ‘용이 회전하여 조상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일명 ‘회룡고조(回龍顧祖)’라고도 하며, 혈과 명당을 이룬다.

(7) 쇠룡(碎龍)

땅에 변화가 없고 동시에 생기가 미약한 용을 말한다. 이러한 땅은 탄력이 없어 흐물흐물 흠어지는 토질로 이루어져 있다.

(8) 광룡(狂龍)

역룡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용이 안정되지 못하고 마치 광분하는 상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세에서는 험한 바위들이 불규칙하게 솟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9) 천룡(賤龍)

용의 형태가 단정하지 못하고 분산된 기운을 갖고 있다. 또 기운이 음습하여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10) 편룡(片龍)

단면상 좌측이나 우측 한쪽이 급경사를 이뤄 좌우 균형을 잃은 용을 말한다.

(11) 기룡(騎龍)

용이 급하게 달려가는 형태를 말한다. 주로 높은 산맥의 정상 부분에 많이 있으며, 산의 기운은 강하나 음양의 조화가 부족하여 생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2) 직룡(直龍)

용이 전혀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직선적으로 늘어진 형태를 말한다. 용의 기본 마디가 15미터인데, 30미터 이상을 변화 없이 직선으로 뻗은 용을 직룡으로 구분한다. 직룡은 대표적인 사룡이다.

6) 용의 5단계 결혈(結穴) 과정과 혈판의 형태

하늘과 땅에는 각각 양전기와 음전기가 분포되어 있다. 지표면 중에서 뽕족하게 솟아오른 산이나 능선에는 평탄한 땅에 비해 음전기가 많이 모여 있어 벼락이 떨어지기도 한다. 태양에 의해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면 그 지열은 산의 능선을 통해 봉우리까지 전달된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고 기운이 내려가면 산봉우리의 찬 기운이 능선을 따라 낮은 지면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능선을 통해 열이 상하로 이동하는데, 이것은 곧 용이 높은 산봉우리와 낮은 지면 사이를 연결하는 지기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는 변전소, 분전반 등을 거쳐 주택의 전등으로 전달되는데, 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전달된다. 전선이 중간에 끊기거나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용이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는 혈이나 명당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 전선 굵기에 따라 전류의 양이 다른 것처럼 굵은 용에는 많은 기운이 흐르고, 가는 용에는 작은 기운이 흐른다.

주산에서 발생된 기운이 혈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태조(太祖), 중조(中祖), 소조(小祖), 입수(入首), 혈판(穴板) 등의 5단계를 따르며, 이 5단계 사이에는 용이 있어서 서로 앞뒤의 기운을 연결시킨다. 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5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일 용이 끊어지게 되면 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약하게 된다.

용의 5단계 결혈 과정 중 태조는 주산에 있는 주봉, 즉 용이 연결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중조는 태조로부터 내려오던 기운이 새롭게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하고, 소조는 중조로부터 내려오던 기

운이 다시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한다. 또 입수는 소조로부터 용을 통해 내려오던 기운이 혈을 이루기 위해 기운을 단단하고 강하게 뭉쳐 놓은 지점을 말하며, 혈관은 입수에 들어온 기운이 혈을 만들기 위해 만든 널찍한 공간을 말한다. 혈관 중심부에는 혈이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혈관 주변의 평탄한 공간은 모두 명당이 된다.

(1) 혈관

혈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당판(當坂)이라고도 하며, 혈관 한가운데에 혈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혈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정상적인 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혈관 상부에는 입수가 주룡에 연결되어 있으며, 입수 아래로는 혈이 있고 혈의 좌측과 우측 양쪽에는 선익(蟬翼)이 위치하고 있다¹⁴⁾. 그리고 혈과 양쪽의 선익 아래에는 전순(前唇)이 있어서 혈과 혈관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혈은 혈관에서 상하 좌우로 둘러싸인 중상(中上)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혈관은 혈을 만드는 바탕이 되므로 혈관의 힘이 크면 이곳에 있는 혈의 기운도 크게 되고, 혈관의 힘이 약하게 되면 혈의 힘도 미약하게 된다.

(2) 입수(入首)

산의 봉우리로부터 용을 통해 내려온 지기는 혈을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로 혈관의 상부에 먼저 입수를 만든다. 입수는 용에 흐르는 기운을 끌어당겨 그 기운으로 혈과 선익, 주작을 만든다. 입수는 용의 하단에, 혈의 상부에 위치한다. 형태는 용보다 약간 높게 솟아나며, 좌우가 비슷해 안정을 이루고 있다.

입수에 뭉쳐진 기운은 혈과 선익을 만들며, 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수가 있어야 하므로 입수의 유무는 혈의 유무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관건이 된다. 입수의 기운에 따라서는 혈이나 선익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입수는 내룡의 기운 외에 주변의 지세, 즉 산이나 물 등의 기운이 복합

1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되며, 여러 가지 지세 중에서 용의 기운이 입수의 기운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 따라서 입수의 기운이 크면 혈의 기운도 크게 되며, 입수의 기운이 빈약하면 혈의 기운도 빈약하게 된다.

(3) 선익(蟬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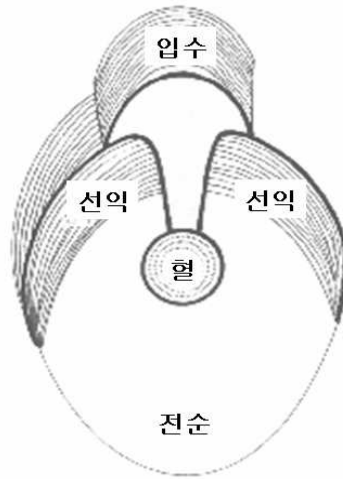
선익은 혈관의 혈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말한다. 선익은 입수에 모인 기운의 일부가 좌우로 분리되어 뻗어 나가 지기가 혈에 모이도록 하는데,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좌우 갈비뼈가 내장을 보호하는 작용과 같다. 선익은 바위와 같이 단단한 토질로 지반을 이루며, 용의 좌우에 평탄하면서도 두둑하게 둘러쳐져 있다.

‘선익’이라는 말 자체는 매미 날개를 뜻하는데, 매미의 날개는 투명해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얼핏 보아 날개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혈의 좌우에 있는 선익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선익은 혈관 상부에서 입수가 혈로 전해지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30도 각도를 이루며, 그 크기는 한 절의 길이인 15미터 정도이다. 선익이 있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고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익이 없는 지세에서는 건강을 잃는다.

(4) 전순(前唇)

입수 기운이 혈과 선익을 만든 후, 남은 기운이 혈 아래로 평탄하게 모여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전순은 혈관과 연속적인 지면을 이루며, 혈 앞에서는 마치 새 주둥이와 같은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순은 혈에 생기가 모이도록 하는데, 평탄하고 단단한 토질이어야 기운을 모을 수 있다. 전순이 없거나 전순의 기운이 약한 곳에서는 기운이 모이지 않아 명당을 이루기 어렵다.

이상적인 전순은 혈 앞에서 기운이 끝나는 형태이다. 전순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재물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전순이 좋은 지세에서는 재벌이 배출된다. 그러나 전순이 혈로부터 멀리 연결되어 있거나 솟아오르는 경우는 좋지 않은데, 전순이 솟아오른 경우에는 후손 중에 하극상이 나오거나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그림3-2> 용의 결혈 과정¹⁵⁾

2. 혈(穴)

혈은 지표면 중에서 생기가 특별히 많이 모인 지점을 말한다. 그래서 집터나 묘자리로 가장 이상적인 땅이다. ‘혈’이라는 용어는 ‘비어 있는 구멍’을 뜻하는데, 이것은 혈이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결합하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혈은 용의 거의 끝부분, 경사진 면이나 평탄한 지면 위에 형성된다. 대부분의 용이 암석으로 되어 있듯 혈도 암석으로 구성된 당판의 중상(中上) 부위에 자리 잡는다. 혈은 당판에서 입수와 주작, 좌우 양쪽의 선익에 둘러싸여 있으며, 용과 입수의 지기, 좌우 선익과 하부의 전순 등 여러 가지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다. 혈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2미터 정도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방 각각 6미터가 되는 넓은 혈도 있다. 혈의 생기는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많으며,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그 밀도가 낮아진다.

혈은 형태에 따라 와혈(窩穴), 겸혈(鉗穴), 유혈(乳穴), 돌혈(突穴)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1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1) 와혈

와혈과 겸혈은 우묵한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어 여성의 생식기에 비유되고, 유혈과 돌혈은 솟아올라 온 형태를 이루고 있어 남성의 생식기에 비유된다.

‘와혈’은 주룡으로 부터 내려온 기운이 혈관에서 좌우로 각각 맥을 벌려 소쿠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2) 겸혈

겸혈은 주룡으로 부터 내려온 기운이 혈관을 이루는 동시에 혈관 양쪽 끝에 받쳐 주는 맥을 갖고 있다. 마치 소의 뿔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어 우각이라고도 한다.

3) 유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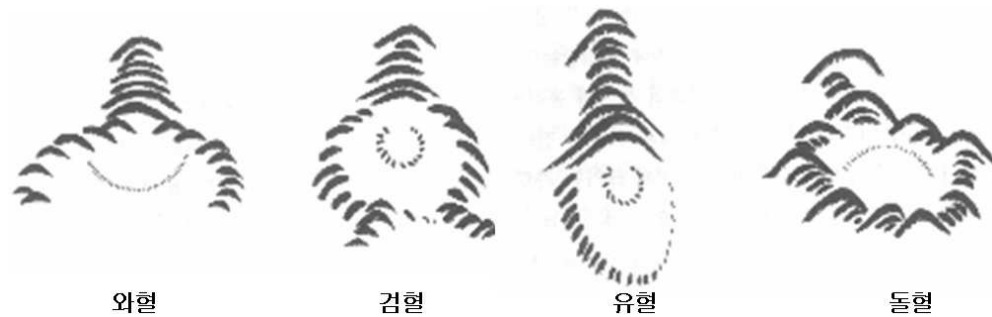
유혈은 용이 길게 뻗어 내려온 형태로서, 여성의 젖가슴과 같다는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4) 돌혈

돌혈은 마치 엎어 놓은 술과 같이 중심 부분이 둥그렇게 솟아오르고, 그 주변에는 술의 다리와 같은 바위가 솟아오른 형태를 이루고 있다. 혈은 암석으로 된 입수와 선익, 그리고 주작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혈 자체는 특수한 토질로 구성되어 있다. 혈을 구성하고 있는 혈토는 일반적인 흙과는 그 모양새가 다른데, 겉에서 보기에 마치 암석과 같으나 실제로는 바위와 흙의 중간 성분을 갖고 있는 ‘비석비토(非石非土)’이다. 삼이나 곡괭이 등의 가벼운 기구로도 손쉽게 파낼 수 있으며, 혈토 덩어리는 바위와 같은 결을 촘촘히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색은 금빛과 같은 밝은 색채를 띠고 있으며, 때로는 다섯 가지의 시루떡과 같이 겹겹의 층을 이루기도 한다.

혈토의 구성 상태는 매우 치밀해 외부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나무 뿌리나 벌레, 바람 등 아무것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면서 신비한 기운을 모

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혈토에 시신을 묻게 되면 물이나 나무 뿌리, 벌레 등이 근접하지 못하고 혈토에서 발생하는 생기가 시신을 감싸므로 시신이 안전하게 보존된다.



<그림3-3> 혈의 형태에 따른 분류¹⁶⁾

혈에서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동일한 지점에서 순환하여 조화를 이루으로써 열과 빛을 발산한다. 그래서 혈은 다른 곳보다 따뜻하고 밝아 명당을 이룬다.

3. 사(砂)

1) 사신사 명칭의 구분

산의 좌우, 전후 사면에 있는 산을 사신사(四神砂)라고 한다. 사신사 각각의 명칭은 주산을 등지고 지대가 낮은 곳을 향해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좌측에 있는 산을 청룡(靑龍), 우측에 있는 산을 백호(白虎), 전면에 있는 산을朱雀(朱雀), 그리고 후면에 있는 산을 현무(玄武)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좌청룡 · 우백호 · 전朱雀 · 후현무라고 말한다.

청룡이나 백호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어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보이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청룡을 ‘내청룡’이라 하고, 내청룡 후면에 있는 산을 ‘외청룡’이라고 한다.

1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또 백호에 있어서 혈이나 명당에 가까이 있는 백호를 ‘내백호’라 하고, 내백호 후면에 있는 산을 ‘외백호’라고 한다. 청룡과 백호를 같이 말할 때는 용호(龍虎)라고 한다.

청룡 중에서 주산에서부터 맥이 연결된 청룡은 본신청룡(本身靑龍)이라고 하며, 주산에서 맥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산으로부터 맥이 연결된 청룡은 외산청룡(外山靑龍)이라고 한다. 또 백호 중에서 주산으로부터 맥이 연결된 백호는 본신백호(本身白虎), 다른 산으로부터 맥이 연결된 백호는 외산백호(外山白虎)라고 한다. 본신과 외산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주합용호(湊合龍虎)라고 한다. 본신용호와 외산용호를 비교하면 본신용호는 주산으로부터 맥이 연결되어 있어 외산용호보다 명당에 생기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사신사는 고대인들의 신앙인 삼신오제(三神五帝)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삼신이란 하느님의 조화(造化), 치화(治化), 교화(教化) 등 세 가지 능력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오제는 동서남북과 중앙의 5개 방위에서 하느님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분신(分神)을 말한다. 즉 동제(東帝), 서제(西帝), 남제(南帝), 북제(北帝), 중제(中帝)를 뜻한다. 이 오제는 각각의 고유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동제는 푸른빛의 기운을 갖고 있어 청제(靑帝)로, 서제는 백색의 기운을 갖고 있어 백제(白帝)로, 남제는 붉은 기운을 갖고 있어 주제(朱帝)로, 북제는 검은 기운을 갖고 있어서 현제(玄帝)로, 그리고 중제는 노란색의 기운을 갖고 있어 황제(黃帝)로 구분한다. 오제는 수성과 화성, 목성, 금성, 토성 등 5개별에 각각 분산, 배치하기도 한다.

오제 중에서 청제는 하늘의 동쪽을 관장하여 태양을 떠오르게 하며, 모든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주제는 하늘의 남쪽을 관장하여 태양이 뜨겁게 빛을 발산하도록 하며, 동쪽에서 탄생시킨 여러 생명체를 사망으로 분산시켜 활발하게 살도록 한다. 백제는 하늘의 서쪽을 관장하며, 태양을 저물게 하고 활발한 생명체들에게 죽음을 준다. 북제는 하늘의 북쪽을 관장하여 태양이 기운을 감추는 동시에 백제에 의해 죽음에 이른 모든 생명체가 편안하게 휴식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황제는 하늘의 중앙을 관장하는 동시에 동서남북 여러 신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게 한

다.

오제는 이처럼 지상의 여러 가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생명체의 수명이 다한 후 다시 그 생명력을 거두어들이는 등 일체의 생명 활동을 관장한다.

하늘에 머물고 있는 오제는 때로는 지상에 내려온다. 오제가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경우에는 일정한 생명체의 형태를 갖추고 각각 지정된 공간에 나타나는데, 청제는 용의 형태로 동쪽으로 내려오며, 백제는 호랑이의 형태로 서쪽으로, 주제는 공작새의 형태로 남쪽에, 북제는 거북이의 형태로 북쪽에, 그리고 황제는 사람(人)의 형태로 중앙에 각각 나타난다.

이 같은 하늘의 오제가 용과 호랑이, 공작새, 거북이 등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 개념은 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선사상에 기초한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의 신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산을 통해 내려와 산에 머문다. 오제는 산으로 내려와 동쪽 산에는 청룡, 서쪽 산에는 백호, 남쪽 산에는 주작, 그리고 북쪽 산에는 현무로 각각 자리 잡으며, 중앙에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황제를 둘러싸고 보호한다. 따라서 산의 중심맥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 내려오는 지세에서는 남쪽을 향해 내려다보아 동쪽, 즉 좌측에 있는 산에는 청룡, 서쪽인 우측에 있는 산에는 백호, 그리고 남쪽의 전면에 있는 산에는 주작, 북쪽인 후면에 있는 산에는 현무가 각각 자리잡게 되어 산의 방위와 사신사가 된다.

주산이 남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방위에 관계없이 좌측에 있는 산을 청룡, 우측의 산을 백호, 전면의 산을 주작, 그리고 후면의 산을 현무라고 한다.

사신사 중에는 생기를 만드는 사신사와 생기를 만들지 못하는 사신사가 있다. 생기를 만드는 사신사는 명당과 혈을 이룰 수 있으나, 생기를 만들지 못하는 사신사는 혈이나 명당을 이루지 못한다. 생기가 있는 사신사는 청룡과 백호가 명당이 있는 쪽을 앞면으로 하여 공손한 자세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반면, 생기가 없는 사신사는 청룡과 백호가 명당을 등지고 있는 형태를 이루어 명당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2) 사신사의 기능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신사가 있는 곳이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며, 곡면 반사경의 기능, 볼록 렌즈의 기능 등 세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생기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하게 부는 바람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켜 생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강한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사신사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藏風)’이라고 한다.

청룡과 백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을 막아 주는 것은 아니다. 지세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생기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용호가 바람막이의 기능을 수행하고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당을 앞으로 하여 혈을 마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삼태기 형태와 같이 둥그렇게 원형을 이루어 감싸고 있어야 한다. 용호가 명당을 향해 감싸고 있지 않더라도, 명당 쪽을 향해 아름답게 마주 보고만 있어도 바람막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용호가 명당 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설사 둥근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막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곡면 반사경은 반사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 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곡면 반사경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산, 나무, 강 등 모든 물체는 자체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 따라서 태양과 달빛이 청룡과 백호에 비추게 되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된다. 이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는 경우, 이 초점에는 신비한 기운, 즉 생기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반사경의 초점에 생기가 발생하는 공간을 혈이라고 하며, 혈 주변의 공간

을 명당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빛이 모이는 공간은 그 빛으로 인해 이름 그대로 명당을 이룬다. 따라서 청룡과 백호가 반사경의 기능을 완전하게 해야 생기가 많아져 명당을 이루게 된다.

또 볼록 렌즈는 분산되어 있는 빛을 하나의 초점에 모음으로써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는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이 둥근 형태의 청룡 능선은 마치 볼록 렌즈의 둥근 부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볼록 렌즈 형태의 청룡이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기운을 모아 하나의 초점을 만들게 된다. 이처럼 청룡은 혈의 좌측에서, 백호는 혈의 우측에서, 주작은 혈의 앞에서, 그리고 현무는 혈의 뒤에서 각각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네 개의 볼록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고, 여기에 엄청난 양의 생기가 모이게 되는 것이다.

3) 사신사의 생기

혈에 생기를 만들어 주는 사신사, 즉 청룡·백호·주작·현무 등은 각각의 생기를 갖고 있다.

(1) 청룡(靑龍)

청룡에서 발생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청룡이 세 가지 기능을 다하는 지세에서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고, 자손(특히 남자)들이 훌륭하게 되어 고급 공무원이 되거나 경제적인 번창을 이룬다. 또 자손도 번창한다. 이와는 반대로 청룡이 나쁜 지세에서는 건강을 잃고 자손이 줄어들는데, 심한 경우 대가 끊기기도 한다.

청룡의 형태는 남자들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청룡의 산세가 강건하면 힘차고 용감한 남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청룡의 지세가 약하면 병으로 고생하는 남자들이 많아진다. 또 청룡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반면, 청룡의 산세가 상부보다 하부에 높이 뭉쳐 있으면 하극상의 비극을 낳는 사람이 나오고,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회를 등지는 후손들이 나온

다. 또 이런 지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거나 부도를 당하는 등의 일을 겪게 된다.

만일 청룡의 끝부분이 집터를 등지고 멀리 뻗어 나간 지세라면 형제간의 관계를 끊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 흔히 부모를 떠나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이런 지세의 영향이다.

여러 명의 형제가 있을 경우, 청룡은 부분적인 형태에 따라 자식들의 형편이 달라진다. 즉 청룡을 시작점에서부터 끝부분까지 전 길이를 삼등분했을 때 맨 위의 부분은 형제 중에서 장남에게, 가운데 부분은 차남에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막내 아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룡 상부에 큰 힘이 뭉쳐 있는 지세에서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크게 발전하게 되고, 끝 부분에 힘이 뭉쳐 있다면 막내 아들이 가장 크게 성공하게 된다. 청룡이 전반적으로 고르다면 모든 형제들이 고르게 발전한다. 청룡뿐만 아니라 백호의 길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므로, 딸과 며느리에게 그 기운이 전달될 뿐이다.

(2) 백호(白虎)

백호에서 발생하는 기운은 재산과 여성의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백호가 기능을 다하는 지역에서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은 물론 며느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

또 여성의 체질이나 성격에도 반영되어 백호의 산세가 유순한 지세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가문을 위해 정절을 바치는 여성이 나오는 반면, 등을 돌리고 있는 산세에서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후면을 보이는 배반격인 경우에는 재물을 잃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3) 주작(朱雀)

주작은 혈관 하부, 즉 전순부터 멀리 있는 조산까지의 산을 모두 말하는데, 주작 중에서 집터 가까이에 있는 안산(安山)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 평판 등의 기운과 연관된다. 그래서 주작이 좋은 집터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작이 나쁜 집터에서는 재산을 잃게 되고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등 명예를 잃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는데, 현무가 주인이라면 주작은 손님 또는 보조자로서 현무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 이상적이다. 안산과 조산에서 생기를 보내는 지세에서는 계급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으로 상승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로부터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된다. 거리 면에서 보면 안산은 집터에서 가깝고 조산은 집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안산에서 발생한 기운이 먼저 작용되며, 조산에서 발생한 기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달된다. 따라서 생기를 만들어 주는 기능에 있어서는 가까이 있는 안산이 멀리 있는 조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작의 일부인 안산은 집터 또는 묘터 앞에 놓인 산을 말한다. 안산은 본래 ‘책상’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고대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책상은 왕 또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진행하는 집무용 도구였다. 따라서 책상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계급이 상당히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높은 신분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풍수에서 안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마치 책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안산의 형태는 주택의 길흉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안산의 형태가 안정되고 힘이 있어서 마치 바가지를 얹어 놓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부자가 배출되고, 문필봉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관직으로 출세하는 인물이 나온다. 반면, 안산의 형태가 불안하거나 흉하면 흉사가 발생한다.

경주의 경우, 남산이 곧 안산이다. 경주 남산은 아름다운 산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신라 시대에는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는가 하면 예로부터 이 주변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안산이 집터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는 지세라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배반당하거나 부도가 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조산이란 집터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산보다는 더욱 멀리 있는 산을 말한다. 서울의 지세에서 안산은 남산이며, 조산은 관악산이다.

관악산은 경복궁에서 바라볼 때는 거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더구나 한강과 남산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화산(火山)의 형태

인 관악산의 영향으로 광화문 앞에 해태 석상을 세운 것처럼, 조산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거리가 멀다 해도 안산과 같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지세는 북쪽에 있는 백운대와 인수봉, 만장봉의 삼각산을 주산으로 하고, 이 삼각산의 기운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북한산의 보현봉으로 이어진다. 보현봉은 다시 기운을 남쪽으로 보내 북악산과 서울 일대를 명당으로 이루고 있다. 이 삼각산은 개성에서 볼 때는 조산이 된다. 그러나 삼각산이 개성을 등지고 남향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 조산이 개성을 등짐으로써 고려의 국운은 개성에서 끝나고, 조선의 한양으로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4) 현무(玄武)

현무는 혈에 지기를 직접 전달하고 있어서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지세가 된다. 따라서 산세의 규모나 기상이 청룡이나 백호, 주작보다 크고 힘차야 하며, 주룡에서 개장과 천심 등 몇 가지 변화 과정을 이루는 생룡이어야 한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되는데, 주작이 사회적인 평판이나 여론 등 외부적인 기운을 받는 데 반해 현무는 스스로 내부적으로 힘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지세에서 현무가 생기를 만들어 주는 반면 주작이 생기를 만들어 주지 못할 경우, 개인의 능력은 우수하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 배출된다. 또 현무는 생기를 만들지 못하지만 주작이 생기를 만들어 주는 지세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도 사회적으로는 인기를 얻는 사람이 배출된다.

4. 수(水)

1) 물의 형태

지상에서 용과 함께 흐르던 기운은 물을 만나면 정지된다. 즉 강이나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는 물의 형태에 따라 기운이 모이는 위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은 크기에 따라서 바다, 강, 댐, 호수, 계곡, 밭고랑, 연못 등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그런데 명당은 바다나 강과 같이 큰 물이 있는 곳에서는 형성되지 않고 개천이나 논두렁, 밭고랑과 같은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 형성된다. 심지어 실개천과 같은 매우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도 명당이 형성되기 때문에, 명당은 공기 중에 수분만 있어도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다는 물의 근원이지만 생기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닷물이 강한 음기이므로 양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모든 생기(生氣)는 양기와 음기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며, 양이나 음 한 쪽만이 강한 경우에는 생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포구로 둘러싸인 지세는 바다의 기운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약간의 생기는 형성되지만 완전한 혈이 형성되기는 어렵다. 바다에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도 낮은 산에 둘러싸여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지역에선 오히려 생기가 모인다. 강과 집터 사이에 야트막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 어느 정도 강의 기운을 막아 주는 지세라면 명당이 형성된다. 한강과 같이 큰 강 주변에 혈이 없다는 사실은 조선 왕조의 왕릉이 강가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강물이 흐르는 형태는 지세에 의해 직선으로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굽이치며 흐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강물의 흐르는 형태에 따라 명당이 형성되는 위치가 다르다. 직선으로 흐르는 강가 좌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기가 모일 수 없다. 이렇게 흐르는 물은 마치 화살이 급하게 지나가듯 바람도 살풍이어서 지상의 기를 흩어지게 한다. 강물이 내려다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지역은 정자를 세워 자연을 바라보는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명당과는 다르다.

풍수에서 이상적인 물의 형태는 궁수(弓水)라고 하여, 마치 활의 둥근 모양이나 굽이쳐 돌아가는 형태로서 곡선 중심의 안쪽을 말한다. 이러한 지세에서는 물이 잔잔하고 지기가 모여 좋은 집터를 이루게 된다. 곡선 바깥쪽에는 기운이 모이지 않아 좋은 집터가 되지 못한다.

경상북도 안동의 하회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서울의 지세에서 보면, 한강이 서울의 남쪽을 통과할 때는 굽이굽이 돌아 마치 활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여의도에서 강화까지는 직선으로 흐른다.

2) 수구(水口)와 집터

수구는 막힌 것, 좁은 것이 좋다. ‘수구’란 한 지역의 하부에 있는 강이나 개천 등의 물이 흘러가는 지점을 말한다. 이것은 청룡과 백호를 살아 있는 용으로 보았을 때 용의 끝과 물이 만나는 지점을 용이 물을 마시는 입으로 본 데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청룡과 백호가 명당 전면에서 서로 입을 마주 대고 상대방의 물을 먹어 생기를 찾는다는 뜻에서 연유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한 지역의 물은 모두 수구를 향해 빠져 나가므로, 모두 낮은 지역에 있다.

수구로 나가는 것은 비단 물뿐만 아니라, 바람도 빠져 나간다. 명당에서는 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 나가더라도 바람은 빠져 나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물이 흘러 나가는 하류, 즉 수구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세에서는 물이 산을 감싸고돌아 나가는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물은 산을 돌아 빠져 나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 나가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형태가 곧 막힌 수구이다.

수구의 기능은 마치 물탱크의 배수 밸브와 같다. 배수 밸브가 열린 곳에는 물이 고이지 못하며 배수 밸브가 닫혀 있는 곳만 물이 고이게 된다. 또 수구의 기능은 인체의 항문과도 같다. 항문은 평상시에 닫혀 있어서 체내 기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력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항문이 열려 모든 기운이 빠져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지세에 있어서 수구는 생기의 발생과 그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수구에 산이 없어 넓은 강물이 일직선상으로 흘러 나가게 된다면,

동시에 바람도 빠른 속도로 흘러 나가게 된다. 이러한 수구를 막힌 수구의 반대 개념으로 열린 수구라고 하기도 하고, 좁은 수구에 반해 넓은 수구라고 하기도 한다. 수구가 막힌 지세에서는 생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큰 부자나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 그러나 열린 수구에서는 생기가 전혀 모이지 않기 때문에 건강과 재물, 명예를 잃게 된다.



<그림3-4> 좁은수구와 넓은 수구¹⁷⁾

수구를 이루는 용은 청룡이나 백호에 관계없이 반드시 역수(逆水)를 해야만 한다. 수구를 이루는 용이 역수를 하면 그 수구는 좁은 수구가 되고, 역수를 하지 않는다면 넓은 수구인 동시에 산수동거(山水同去: '산과 물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물)가 되기 때문이다. 산수동거 지세에서는 명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의 기운과 산의 기운이 평행선을 이루어 두 기운이 서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수구를 이루는 용의 역수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수구에서 기를 모아 주는 힘도 커지며, 이에 따라 혈에 발생하는 생기도 더욱 많아지게 된다. 청룡의 끝부분에 수구가 이루어질 경우 청룡이 역수를 하면 수구가 좁아

1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지고, 동시에 혈에 생기가 발생한다. 백호 끝부분에서 수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백호가 역수를 해야 한다. 수구 중에서 청룡의 끝과 백호의 끝부분이 서로 한 지점에서 합치거나 겹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수구는 음과 양으로 구분하여 청룡에서 만들어진 수구를 양수구, 백호에서 만들어진 수구를 음수구라고 한다.



<그림3-5> 양파, 역수, 산수동거의 형태¹⁸⁾

한국의 지세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서 대부분의 강물은 서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나 서울 시내를 관통하며 흐르는 청계천은 서울의 서쪽에 있는 인왕산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북쪽에 있는 삼청공원의 물과 합류하여 동쪽으로 흘러, 동대문을 지나 한양대학교 앞에서 한강에 합류된 후에야 비로소 서쪽으로 흐른다. 이처럼 청계천이 동쪽의 낙산을 지나 동쪽으로 흐르는 과정이 바로 역수이다.

서울의 중심인 경복궁을 기준으로 본다면, 낙산은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맥을 연결하고 청계천은 우측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흐름으로써 산과 물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서울의 지세가 세계적인 명당이 되는 것은 바로 청계천의 역수에 있다.

1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서울이 명당이라는 사실은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수도로 결정한 후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서울 청계천 7가에는 조선조에 세운 수구문(水口門)이 있다. 이 수구문은 남산의 끝부분인 신당동과 서울의 중심지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청계천이 만나는 자리인데, 풍수지리적 차원에서 수구문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조선조 중엽에는 서울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시신을 수구문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시구문(屍口門)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 수구문은 청계천이 서울의 청룡인 낙산의 끝부분을 빠져 나가는 지점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구문 주변에 안산과 청룡이 동시에 좁은 수구를 이름으로써 서울을 명당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지세는 북쪽에 서울의 남산이 있고, 남쪽으로 한강이 자리잡고 있다.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한강 물이 흘러 내려가는 한남동 서쪽에는 남산에서부터 서빙고동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백호를 이루며 한남동을 바라보고 있다. 한남동은 백호가 역수하여 수구를 이루어 만들어진 명당이다. 이 한남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자리와 단국대학교 설립자의 묘소는 한남동의 양택과 음택의 대표적인 명당이다.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른바 카페 골목은 한강가의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상권이 많이 발달된 곳이다. 이곳의 지세를 분석하면 한강이 북쪽에 위치하여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흐른다. 방배동 전면에서 볼 때, 한강이 흘러 내려가는 서쪽 끝에는 국립묘지 산이 한강이 흘러 오는 동쪽 앞으로 향하고 있다. 이 국립묘지 산은 방배동에 생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한강이 흐르는 방향에서 역수하여 수구를 좁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방배동은 국립묘지 산이 청룡으로 수구를 막아 좁으로써 명당이 된다. 방배동과 유사한 외국의 도시로는 캐나다 서남부에 위치한 밴쿠버가 있다.

합수(合水) 지역에서도 명당이 형성되기 쉽다. 두 개 이상의 강이나 개천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세인 합수는, 물이 합쳐지면서 기운이 합쳐짐으

로써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득수(得水)란 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지세에서 처음 물이 보이기 시작한 위치를 말한다. 또 물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지점은 파구(波口)라고 한다. 혈은 용과 물의 두 가지 기운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만큼 지세도 반드시 물이 있어야 명당을 이루게 된다. 골짜기는 비록 물이 없다 하더라도 물로 해석한다.

내룡(來龍)의 좌선(左旋), 또는 우선(右旋)에 따라서 득수 지점이 좌측이나 우측이나를 결정한다. 내룡이 우선일 경우에는 청룡 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을 이루고, 내룡이 좌선을 이룰 경우에는 백호 쪽에 득수가 있어야 명당이 이루어진다. 용이 좌선이나 우선, 좌우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득수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용이 직선적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물이 좌측과 우측 양쪽으로 분산되어 흐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양파(兩波)라고 한다. 이러한 양파가 있는 지세에서는 가족이나 재물이 흩어지게 된다.

주택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 수영장 등의 시설을 하는 집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은 풍수로 보아 그리 좋은 집이 못 된다. 마당에 있는 많은 물은 수분을 많이 만들고, 이 수분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집 안까지 전달된다. 수분은 음기(陰氣)로서 공기 중의 양기(陽氣)를 흡수하는 작용을 하므로, 집 안에 늘 양기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양기가 부족한 집에서 살면 남자들이 기운을 잃게 되고, 중풍과 같은 질병을 앓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담장을 높게 둘러싼 주택에서는 연못에서 발생된 수분이 외부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집 안 전체를 습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해롭다.

제 2 절 택리지 고찰을 통한 지세 및 지리적 특성

택리지는 이중환(1690~1752)의 저서로서, 사민총론, 팔도총론, 북거총론, 총론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민총론에서는 사대부의 신분이 주·상·공으로 달라지게 된 원인과 내력을 말하였고, 팔도총론에서는 국토의 역사와 지리를 도별로 나누어 그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북거총론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북거총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살터를 잡는 데는 첫째 지리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는 생리가 좋아야하고, 다음으로는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지리는 좋아도 생리가모자라면 오래 살수가 없고 생리는 좋더라도 지리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 된다. 지리와 생리가 함께 좋으나 인심이 나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할만한 산수가 있어야 한다.

1. 지리

살만한 곳을 택하는 데 있어서 ‘지리’를 첫째로 꼽았다. 물론 여기에서의 지리는 현대적인 의미의 지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지리로서 풍수지리를 뜻한다.

지리를 살피기 위하여는 먼저 수구를 보고 그 다음으로 들의 형상을 본다. 그리고 다시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흙의 빛깔을, 다음은 조산과 조수를 본다. 무릇 수구가 영성하고 널따랗기만 한 곳에는 비록 좋은 밭과 넓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 본 후 구해야 한다.¹⁹⁾

그러나 산중에서는 수구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수구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19) 이중환,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6

있어야 한다. 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이나, 역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게 판국을 가로막았으면 좋은 곳이다. 막은 것이 한 겹이어도 참으로 좋지만 세겹, 다섯 겹이면 더욱 좋다. 이런 곳이라야 완전하게 오래 세대를 이어 나갈 터가 된다.

사람은 양명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陽明한 빛인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은 결코 살 곳이 못된다. 해와 달과 별빛이 항상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고운 기운이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인재가 많이 나고 병 또한 적다.

사방에 산이 높아서 해가 늦게 돋았다가 일찍 지고, 밤에는 북극성도 보이지 않는 곳은 가장 꺼려야 한다. 이런 곳은 양명한 빛이 적고 음산한 기운이 모여 잡귀가 모여들기도 한다. 또 산안개와 장기가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다. 이 때문에 산골에 사는 것이 들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큰 들판에 낮은 산이 둘러진 것은 산이라고 하지 않고 들이라 한다. 그것은 하늘빛이 막히지 않고 水氣도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높은 산중이라도 들이 펼쳐진 곳이라야 바야흐로 좋은 터가 된다. 이중 祖宗되는 산 모양은 다락집이 치솟은 形勢라야 좋다는 감여가의 말이 있다. 주산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것이 으뜸이다. 뒤에서 내려온 산맥이 감싸 돌면서 골판을 만들어 궁내에 들어온 듯하며, 주산의 형세가 온중하고 풍대하여 겹겹이나 높은 궁전 같은 곳이 다음이다.

그리고 사방에 산이 멀리 있어 평평하고 넓으며, 산맥이 평지에 뻗어 내려왔다가 물가에서 그쳐 들판 터를 만든 곳이 또 그 다음이다. 가장 꺼리는 것은 산의 來脈이 약하고 둔하며 생생한 기색이 없거나, 혹 산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 古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 땅에 생생한 빛과 고한 기운이 없으면 인재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 모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산은 반드시 멀리 있으면 맑게 빼어나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맑고 깨끗하여 사람이 한번만 보아도 기쁨을 느끼고, 울퉁불퉁한 밍살스런 모양이 없어야 고한 것이다.

潮水는 물 너머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냇물이나 작은 시냇물은 역으로 흘러든 것이 길하다. 그러나 큰 냇물이나 큰 강이 역으로 흘러드는 곳은 결코 좋지 않다.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산맥의 좌향과 음양이치에

합치되어야 한다.

또 꾸불꾸불하게, 길고 멀게 흘러드는 것이 좋고, 일직선으로 활을 쏘는 듯한 곳은 좋지 못하다. 이런 까닭에 장차 집을 지어서 자손 대대로 전하려고 하면 지리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여섯 가지 수구, 들형세, 산 모양, 흙빛깔, 물길, 조산, 조수가 긴요한 내용이다.

2. 생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람과 이슬을 음식 대신으로 삼지 못하고, 것과 털로써 몸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히 입고 먹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는 조상과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와 노비를 길러야 하니 재리를 경영하여 넓히지 않을 수가 없다.²⁰⁾

공자도 넉넉하게 된 다음에 가르친다하였다. 옷을 헐벗고 밥을 빌어먹게 되어 조상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부모를 봉양하지도 못하며, 처자의 윤리도 모르는 자에게 어찌 가만히 앉아서 도덕과 인의를 말하랴하겠는가?²¹⁾

세상사람들이 빈 명망에는 민감하면서, 실용은 저버린지 오래다. 늘 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남몰래 악한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체하는 자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먼저 의식의 근원에 힘쓴다음 예의의 단서를 닦게 하여, 사람에게 악한 일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자를 보내는 데에 모두 財物이 소요된다. 그런데 재물은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름진 땅이 제일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물물교환할 수 있는 곳이 다음이다.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토질이 오곡과 목화 가꾸기에 알맞은 곳을 뜻한다. 물자를 교류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수레가 통행하기 어려우므로 상인들은 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20) 이중환, 전계서, 을유문화사, 2006

21) 이중환, 전계서, 을유문화사, 2006

많이 들어 이익이 적으니 배로 운반하는 것이 편리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재물을 모은자도 있다고 하였다.

3. 인심

孔子는 “마을 인심이 착한 곳이 좋다. 착한 곳을 가려서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랴”하였다. 또 옛날 孟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아들의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 옳은 풍속을 가리지 않으면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손들도 반드시 나쁜물이 들어서 그르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살터를 잡음에 있어 그 지방의 풍속도 살피게 된다.

4. 산수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곳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이 촌스러워진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곳이 많다. 사람이 자라처럼 모래 속에 살지 못하고, 지렁이처럼 흙을 먹지 못하는데, 한갓 산수만 취해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름진 땅과 넓은 들에 지세가 아름다운 곳을 거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10리 밖, 혹은 반나절 길쭉 되는 거리에 경치가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생각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시름을 풀고, 혹은 유숙한 다음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둔다면 이것은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만한 방법이다.

옛날에 주부자가 무이산의 산수를 조항하여 낸 물굽이와 봉우리 꼭대기마다 글을 지어 빛나게 꾸미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다 살 집은 두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봄 동안에 저곳에 가면 붉은 꽃과 푸른 잎이 서로 비치는 것이 또한 나쁘지 않다”하였다. 후세 사람으로서 산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을 본으로 삼을 일이다.

제 3 절 한국의 지세



<그림 3-6> 백두대간도를 통하여 본 한국의 지세

한국의 지세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 물 줄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간다. 또한 금수강산이라 할 만큼, 공기가 맑고 물이 맑아 산하가 수려하고 산은 높다. 암반이 비교적 많고 토질은 빈약하다. 지층이 얇아 산은 강한 편이고 물은 약한 편이다. 지세가 좁은 지리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성격이 대체로 급하고 빨리 동요하고 빨리 누

그러지는 경향이 있으며, 두뇌가 명석하여 행동면에서는 민첩하고 활발하나 유장하게 멀리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삼면이 모두 바다여서 해안을 이용한 무역의 수출입이 용이하고 해산물이 풍부하며 묘혈의 대표적인 사상혈인 와겸유돌에서 비교적 돌혈과 유혈이 많이 보이는 편이나 지역에 따라 골고루 나타나는 편이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사이에 위치하여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절풍기후에 속하므로 서풍이나 서북풍을 많이 받아 여성이 대체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데 이것은 서풍이 음풍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선과 위선으로 북위 33도~43도, 동경 124~134도 사이에 해당되므로 위도상으로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며 기후가 온난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성 기후에 속한다 남북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식생이나 생태계의 변화, 양식분포면에서 남북간의 차이가 현저하다. 현재 한국의 표준시는 동경 135도 선을 사용하므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본초자오선상의 표준시보다 9시간 빠르다.

전체적인 한반도의 지세는 함경북도의 북쪽 경계에 장엄하게 높이 솟은 백두산이 한반도 모든 산들의 조종산이 되며 북쪽으로 뻗은 맥은 중국의 동북방에 뿌리를 박고, 남쪽으로 뻗은 맥은 황초령을 기점으로 수백리를 서쪽으로 줄기차게 달려 평안도가 되었다. 다시 그 줄기는 남쪽으로 멀리 치달아 약 천여 리에 이르러 관여령, 철령의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조령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고, 그 대간 중에 한 줄기는 관여령에서 남으로 뻗어 황해도에 이어 개성 송악산에 이른다. 또 한 줄기는 철령에서 남으로 달려 서울 삼각산이 되었다. 또 지리산의 여맥이 해남의 관두리가 되어 남해 쪽에 많은 섬을 이루어 놓고 마침내 제주도 한라산을 최종적으로 이루니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마다 모두 조종산인 백두산으로부터 이어진 매고가 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영험한 기운을 안은 맥이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틀어 흘러가면서 고적기복하며 때로는 찌를 듯이 높이 솟고 깊은 계곡을 형성하며 만학천봉의 수려한 기상의 크고 작은 산들이 기암괴석을 자랑하며 숭한 명산을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한라산, 지리산 등은 높고 빼어난 산세의 위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산들이다.

동맥과도 같은 하류의 대표적인 큰 강들은 평안도의 압록강, 함경도의 두만강, 평양의 대동강, 청천강, 경기도의 한강, 임진강, 경상도의 낙동강,

전라도의 섬진강, 충청도의 금강이다.

백두산의 서쪽으로부터 발원한 압록강은 서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서남으로 방향을 꺾어 위주에서 바라도 흘러 들어가고, 백두산 동쪽으로부터 발원한 두만강은 동북으로 흘러가다가 함경도 온성에 이르러 다시 동남으로 방향을 꺾어 경흥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청천강은 평안도의 회천과 운산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가다가 안주에 이르러 박천의 대정강과 합수하여 노강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대동강은 평안도의 영원, 맹산, 양덕에서 발원하여 평양을 가로질러 강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임진강은 강원도의 이천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꺾어 경기도 풍덕에 이르러 한강과 합수되어 흘러간다. 한강은 두 줄기의 물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강원도의 강릉에서 시작되고, 또 하나는 충청도의 보은에서 발원하여 충주 서북쪽에서 합수하여 서북쪽으로 감돌며 흘러 가다가 서울의 남부를 감싸 안고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전라도의 용담에서 발원한 금강은 서북으로 멀리 돌아 흐르다가 동진강과 만나 합수되어서 서쪽으로 흘러 가다가 충청도의 서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경상도의 안동, 영주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남쪽으로 굽이굽이 돌아 흐르다가 남강과 만나 합수하여 웅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섬진강은 본래 두 줄기에서 발원한 강인데 하나는 전라도 동북에서 흐르고, 또 한 줄기는 진안과 임실을 거쳐 흘러가다가 곡성에서 물이 합류하여 하동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산과 물이 마치 한 폭의 비단에 수를 놓은 듯 굽이굽이 펼쳐져 말 그대로 한반도는 금수강산으로 빼어난 강산을 자랑하고 있다.

제 4 장 풍수지리이론의 현대적 해설

제 1 절 현대 풍수의 개념

1. 음양에 의한 해석

현대의 풍수는 생활풍수, 가상 등의 명칭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론적 근거는 전통 풍수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활풍수라는 명칭이 보편적이며 일본에서는 가상으로 통용되고 있다. 생활 풍수란 생자의 활동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 활력을 준다는 풍수를 의미한다. 생활풍수는 풍수의 분류상 양기, 양택풍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상을 포함한 개념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명칭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현대 풍수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쓰도록 한다.

전통 풍수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이 산과 물이라면 그것들을 건물과 도로에 재해석하여 현대 풍수의 원리를 도출 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리의 공동 배경은 음양사상에 있다. 역의 체계에 의하면 정음동양에 산본정 수본정이라 하였고, 이것은 산은 본래 움직이지 않기에 정인 동시에 음이며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움직이기에 양인 것이다. 이렇게 음양으로 대상을 분석한 후 전통풍수와 마찬가지로 길흉을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전통 풍수나 현대풍수에 있어서 같은 음양 논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예로 전통 풍수에 있어서 산수와 좌향 관계는 배산임수를 길로 보고 이를 음양 체계로 보면 배음임양이 된다. 배음임양을 현대 풍수에 활용하면 음은 건물을 양은 도로를 뜻하기에 뒤편에 건물이 있고 앞쪽으로 길이 접하면 좌향이 길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양체계의 설명은 사상 관계로도 설명된다. 음양은 태양, 소양, 소음, 태양 이라는 사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상의 경우 태음과 태양이 만나면 길하고, 소양과 소음이 만나도 길하지만 태음과 소양, 태음과 소음, 태양과 소양, 태양과 소음이 만나면 흉하다는 것이다. 건물과 도로를 음양으로 분석하여 길흉을 판정하는 현대풍수처럼 가상 역시 음양으로 분

석하여 길흉을 판정하는 현대풍수처럼 가상 역시 음양으로 분석하여 길흉을 찾아내는 것으로 같은 맥락인 것이다. 길하다는 태음과 태양은 큰집과 큰 도로의 관계로서 만약 10층짜리의 건물 앞에 작은 골목길이 있다면 건물의 활용도가 거의 무용지물로 이는 흉하다는 것이 된다.

전통풍수와 현대풍수에 있어서 산은 건물이고 물은 도로라는 관계들이 성립되고 이러한 길흉관계는 단순히 음양체계로써 길흉판단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양과 형상으로 길흉결과를 해석하기도 한다.

<표4-1> 전통 풍수와 현대적 풍수의 비교

기본원리	전통풍수의 적용	현대풍수의 적용
음, 양	산, 물	건물, 도로
배음임양	배산임수	건물은 뒤로, 도로는 앞으로
사상의 해석	태음 + 태양 = 길 소음 + 소양 = 길 태음 + 소양 = 길 태양 + 소음 = 흉 태양 + 소양 = 흉 태음 + 소음 = 흉	큰 건물 앞의 큰 도로 = 좋음 작은 건물 앞의 작은 도로 = 좋음 큰 건물 앞의 작은 도로 = 나쁨 작은 건물 앞의 큰 도로 = 나쁨
장풍	사신사 후현무, 전주작 좌청룡 우백호에 의한 장풍	사신사의 개념을 건물에 적용, 전후 좌우의 건물로 둘러 쌓여 바람을 막아주면 좋음으로 해석
득수	곡수 = 길 직수 = 흉	삼면이 도로인 건물 = 좋음 고속도로 앞의 건물 = 나쁨

예를 들어 전통풍수에서 수곡은 길이며 수직은 흉이라는 길흉판정을 하는데 이것 역시 집 앞을 도로가 감아 돌면 좋고 집 앞의 도로가 급하게 질러 나가면 결코 좋지만은 않다. 여기서 집을 상점이라고 가정하면 길흉판단이 용이하다. 상점의 삼면이 도로로 감싸여 마치 수고과 같은 입지인

경우에는 길하며 도로가 급히 가로 질러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지하철 통과도로에 입지한 상점은 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현대풍수는 전통 풍수의 논리를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것이며 그 중 양기풍수와 양택풍수를 대상 범위로 삼은 풍수인 것이다.

2. 풍수이론의 적용 개념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여 자연의 위협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비와 바람과 맹수로부터 피신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집은 자연동굴이었다. 동굴의 구멍 혈(穴)이라는 글자로 표현한다. 따라서 자연 동굴을 집으로 이용한 주거생활을 혈거 생활이라고 하였고, 인간은 혈거생활로부터 인공적인 혈거인 수혈주거(豎穴住居, 땅을 낮게 파고 기둥과 지붕을 세워 주거로 세운다는 의미인 수(豎)자)로 발전하였다. 자연 동굴의 혈거 생활에서 수혈주거는 원형에서 방형으로 변화 되어 갔는데, 이는 풍수의 청원지방이라는 사상과 연과해 볼 수 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졌다는 시각은 원형수형은 천원이며 방형 수형은 지방과 통한다. 하늘이 둥글다는 개념은 시각적인 개념에서 출발 했으며, 태양과 달들이 둥근 것에서 원은 하늘이라는 상징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땅이 네모 졌다는 것은 사람의 인체와 결부시키면 하늘에 가까이 있는 머리이며 이 역시 둥근 현상인데, 땅에 가까이 있는 발을 보면 직사각형에 가까운 방형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동양 특유의 천지인삼재합일사상(天地人三才合一思想)에서 삼재의 하나인 인간의 머리와 하늘이 닮았고 발은 땅을 닮았다고 보았다.

땅에 토대를 둔 주거모양이 방형이라는 것은 동양사상의 풍수해석에 다음과 같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풍수에 있어서 집의 평면이 방형의 경우는 길형이며 만약 이빨 빠진 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을 때에는 흉형이라고 하여 지방이라는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천원지방의 대상에 음양을 대입시킬 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 되고 하늘의 문양은 둥근 것이기에 둥근 기둥인 원주는 양이고 땅은 음이 되고 하늘의 문양은 둥근 것이기에 둥근 기둥인 원주는 양이되고 문양이 네모진 방주는 음을 상징하는 것이

다.

풍수시각으로 집을 해석하면 옛 주거방식인 수혈 주거의 혈(穴)자리에서 풍수맥락을 잡을 수 있다. 풍수의 목적은 승생기에 있고 이러한 승생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혈처라 한다. 풍수의 혈과 집의 원초적 원형이 되었던 혈거의 혈은 주거라는 자리 개념에서 통하는 것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사람의 정신은 양명한 양기를 받고 태어났기에 하늘의 빛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지상주거가 유리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상 주거양식에 양택이라는 풍수명칭이 부여된 것이고 또한 사람은 혼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음에 이르면 정신이라는 혼은 양이기에 천계로 돌아가나 사자는 오로지 육체라는 백(魄)만 남는데 백은 음이기에 땅속 깊숙이 매장하는 양식을 음택으로 부르게 된 이유이다. 죽은 자의 무덤을 택(宅)이라 칭하는 것은 장(葬)자의 형상에서 공(孔)자 형상은 땅에 구멍을 판 모양이며 공(孔)자 형상에 죽은 자의 사(死)를 집어넣고 그 위에 풀 초(艸)를 덮은 무덤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죽은 자를 장자라 부르는 것에서 무덤을 죽은 자의 집이라고 하여 음택이라 하는 것이다. 양택 풍수에 있어서 혈자리에는 안방이 매김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잠을 잘 때 자생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모든 의식은 외부의 영향을 그래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때 잠을 자는 안방이 혈로써 생기를 얻는다면 가장 많은 승생기를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을 통하여 생기를 얻으려는 행위를 생기 위에 올라탄다는 의미인 승생기로 표현하는 것은 <장경> 기감편에서 생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무릇 음양의 기는 내뿜으면 바람이 되고, 오르면 구름이 되고, 떨어지면 비가 되며, 땅속을 돌아다니면 생기가 된다’ 라고 하여 지기가 생기라는 개념으로 인식한 장설의 이러한 표현의 영향이다. 따라서 혈 위에 승하는 지상주거는 좌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고려와 조선의 왕조는 양택풍수의 혈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혈좌의 좌는 앉는다는 자리를 나타내기에 다음으로 좌향이라는 자리 매김질이 중요하다. 양택풍수에서 먼저 혈을 찾아 그곳에 안방을 배치한 다음에 향을 결정하는데는 두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형국론 논리에서 향을 앞녘과 좌우 녘의 사

중에 유정(有情, 단정, 온화, 출중)한 산을 형으로 잡는 경우(하외 양진당, 산청 서계서원)와 패철의 좌향계산으로 잡은 경우(양동 서백당, 현풍 도동서원)등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좌향 매김질에 있어서 형국론의 안대가 무정(살기, 흥, 무기력)하게 보이면 이름 금기시하여 좌향을 피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안보이도록 하여 비보한 것은 좌향처리의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

현좌를 터 잡이로 했던 양택풍수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좌향은 배산임수가 되기에 어떠한 좌향이 좋다 하더라도 배산임수가 어긋나면 틀린 좌향이 된다. 이상과 같이 양택풍수의 한 분야로 양택의 내부에서 활용하는 기운들의 충돌과 조화 등을 풍수로 풀어보는 가상이 있다. 가상은 양택 내부에 국한시켜서 방위의 조화가 음양조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오행이 상생하느냐 상극 하느냐를 따져 보는 것이며 이는 양택의 주요 자리들이 사상에 맞는지를 분석하면 이해하기 쉬운 아주 체계적인 논리를 가진다.

결국, 풍수를 오늘날의 공간에 적용하는 개념은 과거와 다르지 않으며, 동양의 전통사상이자 철학인 역, 음양, 오행, 사상, 팔괘 즉 기(氣)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풍수의 적용 개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이러한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현시대의 논리에도 타당해야 한다.

3. 기의 개념과 실체

풍수에서 기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 되고 있지는 않으나,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며 생명체, 무생물체 등의 생(生), 장(長), 수(收), 장(藏)에 관여하는 역동적인 기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만물의 생성(生成), 변화(變化), 소멸(消滅)을 기의 작용으로 파악한 것이며, 기라는 글자의 의미와 형상에서 나타나듯, 우주 공간과 확산해 가는 기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는 만물에 스며 있기도 하지만 비어 있는 우주공간 역시 실상은 기로 채워져 있다는 뜻이다. 즉 기는 물질과 비물질, 생물과 무생물, 시간과 공간, 빛과 파장 등 여러 가지 유, 무형이 존재로 우주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이며, 허공이

아니라는 것은 현대물리학 측면에서도 설명된바 있다. 따라서 동양사상에서 기는 우주만물의 구성체와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공기와 같이 비어있고 보이지 않는 기운도 기다.

기는 동양철학과 동양의학 그리고 풍수의 핵심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이는 현대과학으로 아직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체로 21세기를 기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기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는 과학적 장치로 검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땅과 인체 그리고 동식물 내부에 존재하는 기는 복잡한 생리학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어서 비 물질에 있는 존재로서의 기를 따로 분류하여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음양오행의 기를 중심으로 하는 풍수에서는 정지된 상태의 존재로서의 기가 아닌, 음양오행의 기가 서로 상생, 상보, 상충되어 어우러지고 움직이는 기능으로서의 기를 강조한다. 따라서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대상계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시간, 공간, 물질로부터 분리해서 파악하는 폐쇄계 모델인 동양철학의 기를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계기는 3,000년 역사를 가진다는 중국의 기동에서 비롯되었으며, 세계에서 최초로 인체에서 방사되는 외기를 측정한 이는 1977년 상해원자 연구소의 고태삼 박사인데, 기공 상의 손에서 변조된 저주파의 적외선 등이 나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유 무형의 존재 별로 이루어진 고유한 파장 등으로 구별하는 척도를 이용해서 살펴보면 기의 종류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까지의 풍수연구와 이론들은 생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4. 지기와 생기

지기와 생기라는 용어가 풍수이론에 등장한 것은 <장경>에서이다. <장경> 기감편을 보면 생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무론 음양의 기는 내뿜으면

바람이 되고, 오르면 구름이 되고, 떨어지면 비가 되며, 땅속을 돌아다니면 생기가 된다' 고 하여 앞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풍수에서 지기와 생기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혼용하게 되었다.

지기는 지구의 땅 속 기운 그 자체이므로 땅 속 어디든 존재하며 또 지구 형상을 이루는 일기 이지만, 기와 속성상 그 지기 속에는 음양의 기, 내기와 외기, 생기와 사기 등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두 가지 유형의 기운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즉, 지기가 생기와 사기를 품는 것이지, 지기와 생기가 같은 개념이 아니다.

동식물의 몸에 사기 등 나쁜 기가 침범하여 병이 나는 것과 인간의 생·노·병·사의 흐름처럼 살아 있는 생명체인 지구 역시 병든 터가 생긴다. 그러한 장소가 언젠가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명산의 지맥을 도로 건설 등의 이유로 잘라버린 경우와 같은 곳은 치유 되지 않는다.

인체의 생기는 경락을 통해 흐르는 종기와 주성분이 물이 혈기가 뭉쳐진 것이다. 여기서 종기는 공기를 호흡하여 생성된 기운으로 양이 되고, 현기는 물이 주성분이므로 음이 된다. 지구의 생기는 인체의 경맥과 경락을 통해 흐르는 종기(宗氣)와 같이 지구상의 만물이 생육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지맥을 따라 독자적인 통로로 흐르는 기운이다. 이 지맥을 풍수에서는 혈맥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나쁜 터라도 지기가 없는 곳은 없으며, 생기가 많거나 적은 곳은 생기가 지기가 같고, 사기(死氣), 살기(殺氣)가 있는 곳에는 생기가 거의 없다.

토양이라고 하는 흙은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비율이 보통 4:3:3으로 되어 있다. 흙은 겉으로 보기에 고체덩어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과 공기가 각각 반반씩 어우러져 있어야 진정한 흙이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도 흙이라는 물질도 양기의 공기와 음기의 물에 의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사람 몸의 구조가 지구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5대양 6대 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 표면적중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3:7인 것과 똑같이, 사람의 몸도 5장 6부로 구성되어 있고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표면적인 비율로 볼 때, 다른 무엇보다 물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기 형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땅보다 물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혈액 농도 역시 바닷물의 자연 염분과 비슷하며 태아는 야수 속에서 10개월을 사는데 이 야수는 바로 염분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또 인체에 일정량의 소금 기운이 없으면 탈수증세 등으로 죽음에 이르기기도 한다. 이처럼 염분이 생명을 유지해 주는 주요 기운이 된다는 측면에서 생기와 강한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대기 중의 산소(20.9%)보다 질소(78.2%)가 압도적으로 많고 소금의 핵심 성분 역시 질소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질소가 생기의 원천이라고 가정 할 수도 있다.

생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과 주장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풍수연구와 이론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기론의 형세론 즉 형성되는 장소를 산형 지사에 의거하여 찾고 그 장소에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 하도록 한다.

5. 지자기

풍수의 핵심 원리인 생기는 지기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기 중에서 모든 생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자기가 있다. 현대 과학에 의해서 지자기가 밝혀진 것은 풍수의 기원과 비교해 보면 매우 최근의 일이다. 지자기는 지구가 태양의 자파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을 가진 것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향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 크기는 지표에서 약 60만 킬로미터 인데, 태양의 반대편 지표에서 200만 킬로미터인 타원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자기장은 오존층과 함께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각종 우주선과 태양풍을 막아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주선과 태양열로 타오르는 코로나에서 생긴 플라즈마 입자는 초속 500킬로미터로 외계로 방출 되는데, 그 입자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지구의 자정권에 부딪히면, 플러스 전기 입자는 오른쪽, 마이너스 입자는 왼쪽으로 분리되어 날아간다.

또한 지자기는 밤낮 없이 변동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감하는데, 밤이 되면 태양풍의 영향으로 지자기가 왕성해 지고 수맥의 활동도 증가한다.

일본의 과학자 나카가와는 자계 <결핍증후군과 자기치료>라는 논문을 통해, 지자기가 계속적으로 결핍되면 어깨나 목덜미 등이 뻣뻣해지고 요통, 두통, 불면증, 습관성 변비 등의 질병을 앓게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며, 아파트 각층에 뱀을 놓고 자기로 실험한 결과 높은 층으로부터 차례로 죽었으며 그 현상이 3층에서 멈춘 것으로 보아 자기가 생명체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오시마 전 동경대 교수는 ‘자기의 강도가 세어짐에 따라 적당한 자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정 강도 이상일 때는 오히려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와 관련한 문제는 자기맥이다. 자기맥은 지자기와 대기권 위의 전리층이 전기장을 형성 하면서 대지 위에 만들어진 지자기맥이며, 그 폭은 1~15미터로 일정하다. 또한 수맥과 마찬가지로 불면증, 신경성 질환, 조산, 마비증세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지자기는 인체에 유익하지만, 지자기맥은 지형에 따라 지자기장이 교환되거나 전위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파장을 내는 것이다. 수맥은 지면을 균열시키고 방향이 일정치 않으며 변동성이 적은데 반해, 자기맥은 균열이 없고 방향이 일직선을 이루며 크게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탐사해야 한다고 한다.

풍수로 볼 때 아파트의 이상적인 층수는 5층 이하의 저층 부분이며, 고층으로 올라 갈수록 좋지 않다. 그것은 땅과 사람이 사는 집의 기운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데 근거하는데, 이를 지자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동시에 받고 살아간다. 결코 높은 곳에서 하늘의 기운만을 받고 살아 갈 수 없는 것이다. 고층으로 올라 갈수록 지표면과는 떨어지게 되고, 땅에서 발생하는 생기는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박시익²²⁾ 박사는 나무를 통해 반추하고 있다. 지표면에서 가장 높이 살아 있는 생명체는 나무인데,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도 잠을 잘 때는 낮은 물가나 나무 위를 찾는다. 나무 위치는 땅을 근거로 하는 생명체가 머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이므로 나무보다 높은 곳은 생명체의 거주지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 나무 높이는 나무의 종류와 지

22) 건축학박사,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풍수지리전공 겸임교수

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15미터를 평균 삼아 생기가 미치는 범위라고 한다. 지자기의 측정도에 의해서도 한 층의 높이는 2.6~2.7미터이므로 4층에서 5층까지를 생기가 있는 공간으로 보고, 그 이상부터는 생기가 없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지자기만을 생기로 단정 할 수 없으나 높이에 따라 지자기의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된다.

6. 동기감응

동기감응의 논리는 청오경에서 시작 되었는데 ‘길기감응’이라 하여 좋은 기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청오경에서는 흉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장경의 <기감편>에서야 흉가도 감응한다고 하여 동기감응이라는 개념의 정립이 당나라 현종 때에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기감응의 원리를 <장경>에서는 ‘한나라 때 궁중이 있는 종이 스스로 소리를 냈는데 이는 그 종의 재질이 있었던 동산이 무너진 데서 연유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氣) 간의 교감전달 속도는 빛과 같아서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 또는 밀폐된 지하공간에 있을 지라도,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기감응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유사한 실험을 통한 사례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현대의 풍수는 인간과 생기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어 논리상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음택이라는 무덤풍수는 이론적 논리가 성립되기가 쉽지 않다. 사자와 생자간의 동기 감응을 아직까지 명료하게 설명한 풍수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실험이 있었으나 이 또한 명쾌한 동기감응의 입증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

음택 풍수가 성행했던 조선후기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동기감응에 부정이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홍대용(1731~1783)은 ‘중형을 당한 아버지가 옥에 갇힌 채로 고초를 당하여 뼈가 부스러지는데 그 죄수의 아들에게는 종기 하나 생겼다는 말을 듣지 못했거늘 하물며 죽은 자의 혼백에 있어서 어찌 죽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 아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겠는가’ 라

고 동기감응을 비판 했다.

그러나 기풍수의 관점에서 동기감응의 원리는 동기상응론으로 한 단계 변경하여 수용하고 있다. 수맥으로 알려진 임응승 신부는 수맥이 흐르는 수 많은 묘지를 이장하였는데 ‘조상의 시체가 명당이라는 관정 받은 곳에 묻혔다면 자손이 잘되고 부를 누리는 가문이 빛나는 등 경사가 겹쳐지지만, 좋지 않은 곳에 묻혔을 때에는 도리어 후손에게 화를 입힌다.’고 하여 동기감응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감응 원리가 풍수에서 문제가 된 점은 지나치게 이점을 신봉하였다는 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생전의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명당만 차지하면 그 후손이 발복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적용해온 것이며, 이 논리가 그 동안 음택풍수의 폐해로 나타났고, 풍수를 미신으로 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동기상응론의 원리로 보면, 처음에는 명당이었던 곳이 자격 없는 고인이 모셔지면 거의 상합원리에 의해 명당기운이 사라지고, 수맥 등의 유해 과장이 침범하여 흉지로 변모 된다고 하며, 역으로 흉지였더라도 고인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명당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조상뿐만 아니라 다른 조상이나 특정 사물의 길한 기나 흉한 기도 받을 수 있으므로, 동기감응론은 수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년의 대안으로 모종수는 혈연 지연이 수반된 유사동기감응이론으로 같은 현상들에 대해 설명한다. 즉, 며느리나 양자는 같은 혈연관계라는 유사동기에 따라 감응한다는 것이다. 또 집터에서 받은 좋거나 나쁜 과장은 장소마다 다른데, 이것은 자연에서 파생된 유사동기에 따라 감응되는 이치이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동기 감응은 단순히 땅을 하나의 개체로 본 기계론적 이론에 불과하며, 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땅을 무기물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관점에 합당한 동기상응론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제 2 절 입지선정방법

현대의 풍수에서 장소 선정의 원리는 전통풍수의 개념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전통풍수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산과 물, 즉 음양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세가 발달하여 주로 산맥과 용의 흐름을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있다. 현대의 풍수 적용에도 그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대상지가 산세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통풍수의 간룡의 체계를 바탕으로 조종관계와 그로부터 혈자리에 이르는 과정까지 태, 식, 잉, 육 등의 해석 체계로 입지를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주거가 도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시에서는 산세 보다는 건물과의 관계를 음양, 사상, 방위를 해석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도시에서 풍수 개념은 건물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도시의 형성이 양기풍수에 의한 장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도시는 기본적으로 생기가 많이 발생하는 커다란 영역이라는 관점이 전제 되어 있다. 이는 도시의 형성이 양기풍수의 맥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백두대간이라는 산줄기의 흐름 중 끝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풍수원리의 핵심인 생기가 산맥을 타고 흐른다는 개념이다. 산맥과 땅에는 지기가 흐르는데 지기와 생기의 구분을 혈자리 라는 개념에서 해석 할 수 있다. 풍수에서 혈을 찾는 방법은 산맥의 흐름을 조종체계와 용세 12격 등 간룡, 정혈 등으로 하고 있다.

기를 현대 과학에서 에너지로 해석 한다면 간룡의 체계에서 지기와 생기는 땅의 에너지 종류로 해석 될 수 있다. 에너지 구분은 현대과학에서 크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로 구분되는데, 오늘 지구의 대륙과 산맥을 형성하는 개념은 판 구조론으로 해석 되고 있다. 즉 지구대륙의 판 구조가 이동하면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서 산맥을 형성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판의 이동은 조륙운동과 조산운동을 수반한다. 판과 판이 만나서 커다란 산맥을 형성한 경우는 인도대륙의 판과 아시아대륙의 판이 충돌하여 만들어진 것이 중국 풍수의 시조산 격인 히말라야 산맥이며, 우리나라 풍

수에서 백두대간의 개념은 조산운동과 조륙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에너지의 법칙으로 볼 때 산은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변환 것으로 파악되며, 판과 판의 이동은 강한 산맥을 형성하는데 판의 운동에너지는 산의 위치에너지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산맥의 높은 부분에서 낮은 곳으로 힘과 에너지가 분산되어 산맥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산맥에서 에너지의 이동은 가장 높은 부분으로부터 점차 낮아져 평지에 이르기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풍수의 간룡체계에서 조종체계를 가장 높은 산으로 삼은 것과 산맥으로 지기가 흐른다는 개념은 현대의 과학으로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기를 에너지로 해석하는 것은 지기와 생기의 구분에도 적용 될 수 있다. 풍수에서 생기는 혈이라는 장소에 많은 것으로 파악한다. 혈이라는 장소의 유형적 특성은 풍수에서의 돌혈, 유혈, 검혈, 와혈 등으로 구분하는데, 공통점은 산으로부터 평지로 내려오는 지형가운데 불룩하게 솟아 있다는 것이다. 형과 기, 즉 형태와 에너지의 관계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에너지 이동이 산맥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에너지가 평지까지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볼 때 혈의 형태가 솟은 것은 에너지가 위쪽으로 향한 것이며 이러한 장소에서는 산맥의 에너지가 평범하게 내려오는 형태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산에서 기, 즉 에너지가 가장 많은 정상 부위일 것이나 풍수에서 그 지점을 좋지 않게 판단하는 것은 장풍의 조건 즉, 생기를 가두는 것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의 정상지점은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도 공기의 흐름 또는 바람에 의해 흩어지기 때문이다.

전통풍수에서 물의 원리인 득수법은 계수즉지, 즉 산세를 타고 흐르는 생기는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개념이다. 계수즉지의 개념 또한 앞서 밝힌 에너지의 법칙의 설명이 가능하다. 풍수에서 물의 기본적인 특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에 있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볼 때에도, 물이 흐르는 장소는 주변에서 가장 낮은 곳이며 산과 산 사이에 있다. 산과 산의 사이 지점을 에너지로 파악한다면 두산의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이다. 따라서 두산의 에너지와 방향이 균등하다면 에너지의 이동이 멈추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형에서 그러한 현상은 드물게 되나 풍수에서 계수즉지

는 산과 물의 관계가 산을 감아 돌아 흐르는 물의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에서 에너지의 역학관계는 산의 에너지 이동이 거의 멈춘 것과 같아 풍수의 계수즉지가 성립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형의 지리적 특성은 물의 흐름이 곡수의 안쪽에 해당되는 지점이며, 물의 관성으로 볼 때 바깥쪽은 범람이 빈번하고 침식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므로 지리학적으로도 주거 환경이 좋은 지점은 곡수의 안쪽이다.

양택은 국세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평탄하게 탁트여 넓어야 부귀의 터가 되며, 평정하여 광활하고 조산이 대 취기하여 빼어나고 모든 산들이 모여 들어 수려하고 아름답고 순하게 담장이나 울타리를 둘러치듯 회포하여 안고 흐르는 물 또한 깊고 맑으며, 초목이 번성하고 나무가 무성하여 토질은 양 토질로써 윤기있는 비석비토나 황토질로써 부드럽고 후부해야 농작물도 잘 자라 풍작을 이룬다.

큰 도시나 중소도시도 지형지세에 따라 작은 국세가 되어 명당국이 형성되어 있지만 산골이나 협곡은 적은 지룡가지나 분파맥이 빈약하고 단박하여 산도 미약하고 물도 얇아 사방이 공허하여 주의의 산과 물이 달아나는 곳은 사람도 비천하고 가난하다.

농촌에서는 항상 비산비야의 낮은 언덕이라도 굴곡된 요처를 선택하여 살풍이 들지 않고 순풍이 감도는 따뜻하고 기온이 온화한 곳을 선택하여야 한다.

1. 배산임수

배산임수는 주택 뒤에는 산을 등지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을 말하는데 꼭 물은 없어도 뒤는 높고 앞은 낮은 곳을 말한다. 뒤에 산이 있어 병풍을 두르듯 살풍을 막아 장풍이 되어야 따뜻하고 온화하여 화평한 기운이 감돌아 기가 길하며, 조산에서 산맥이 나와 기맥을 탈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으나, 뒤에 높은 언덕이 있으면, 배산임수가 된다.

도시의 평지에서는 높은 언덕은 불길하며 낮은 언덕은 길하다. 낮게 보국이 되어야 한다.

2. 전저후고

주택의 앞은 낮고 뒤는 높아야 길하다. 경사진 곳은 전저후고가 되지만 너무 경사진 곳은 불길하다.

주택은 높은 곳에 있어 정원이나 부속건물이 낮아야하며 길보다 높은 곳에 정원이 있고 정원보다 높은 곳에 주택이 있어야 한다. 길보다 낮은 곳에 주택이 있으면 흉가가 된다.

위치가 높을수록 좋으나 높아도 경사가 완만하면 보산보국이 되어야 한다. 요처가 노무 얇으면 지표면을 약간 파내어 건축을 하고, 너무 깊거나 짧으면 흙을 보토하여 전후좌우가 평정하게 하여 부속건물이나 담장이 건물보다 낮게 감싸 안고 돌아야 길하다. 전저후고에 세출영호라 한다.²³⁾

3. 전착후관

전착후관이란 집에 들어오는 출입구는 좁고 안은 넓어야 한다는 말로 집에 들어오는 골목은 좁아야하며, 대문을 들어서면 정원 또는 마당이 넓어야 한다. 출입구가 좁아야 집안에 있는 따뜻하고 온화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감돌아 길하다.

대지는 네모반듯한 직사각형에 정원이 주택의 2배가 되는 것이 좋다. 건물 좌우전면에 나지막하게 부수건물을 세워 내외문(2중문)을 내면 전착후관이 된다.

실내로 들어오는 현관문도 이중문으로 문을 만들면 전착후관이 된다.

전착후관에 부귀여산이라 한다. 부귀가 산처럼 쌓인다는 말이다. 반대로 전관후착 즉 출입문 밖으로 나갈수록 넓은 것은 집안의 정기가 빠져나가 흉가가 되며 재물이 산재하고 자손들이 방탕해진다.

23) 강희종, 명당비결, 명당출판사, 2000, p.478

제 3 절 형태

1. 형태와 기

기는 육각형이나 팔각형 등 특수한 형상과 공명공진하고, 수정 맥반석, 규석, 귀금속 등의 재질, 그리고 문자와도 공진한다. 그러나 특히 기와 잘 반응하는 것은 물과 생명체로 알려져 있다. 왕국과 절의 처마 서까래는 모두 기가 발산하는 꽃무늬로 단청된 육각형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또한 양동이 속에 수돗물을 넣고 스테인레스로 만든 문양을 넣어두면 육각수가 되는데 육각수로 난을 기르면 꽃도 잘 피고 잎도 무성하게 자란다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우리의 사찰을 보면 석탑과 석등이 많은데 잡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각형의 석등을 배치하여 귀신의 접근을 막도록 했고, 기가 모자란 곳에서는 육각형의 석등, 기가 평범한 곳에서는 사각 석등을 배치하였으며, 중국의 고전건축이나 음식점에서는 팔각 창문을 주로 사용 하였다.

생명체의 근원적인 물방울이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다. 우리 몸의 70%도 물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커다란 물방울, 즉 수구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물리적으로 물의 원소는 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어서 여러 원소들 중 가장 근본적인 원소로 해석한다. 또 물의 분자는 육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육각수가 사람에게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눈도 기본 형태가 육각형이며 바다 속에서 수백 년씩 살아가는 거북이의 잔등에도 육각형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 <주역>에서 물의 기운을 모든 기운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므로 그 성질을 수로 표시 하되, 생수 1과 성수(成數) 6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성질이나 형태는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원형이나 육각형이 생명체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음과 양의 순환 형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태극 역시 원형이다. 오행이론을 도형으로 그린 선천도(先天圖)는 중심부와 그 주변이 정사각형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정사각형이 곧 생명력이 있는 형태임을 뜻한다.

또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덟 가지의 대표적 기운인 8괘 각 팔각형을 이루는 점도 팔각형의 생명 형태를 의미한다.

지구는 항상 자전과 공전의 회전 운동을 하며, 이러한 회전 운동은 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구의 회전 운동은 생명력의 표현이다. 만약 지구가 회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순간 지구의 생명은 멈출 것이다. 바닷물이나 집안의 하수도도 지구와 함께 회전운동을 하며, 인체의 혈액 역시 회전운동을 한다. 지상의 회오리바람도 역시 회전 운동을 한다. 이처럼 물이나 바람 등이 회전 운동을 하는 공간은 곧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며, 회전 운동을 못하는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된다. 이러한 살아 있는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한 공간 형태는 원형이다. 불교의 윤회설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와 변화 과정을 원형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지세에 있어서도 명당은 원형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청룡·백호·주작·현무가 전후좌우를 감싸고 있는 지세의 중심이 혈과 명당이 된다. 명당 지세는 생명력이 가장 밀집된 공간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생기가 모이는 들판 역시 원형이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회전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방형이나 Y자형 들판에서는 회전운동이 일어나지 못해 생기가 모이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적인 형태는 구형이다. 태와 알이 둥글고, 꽃봉오리의 받침도 둥글고, 씨앗이나 열매도 둥글다. 생명력이 가장 밀집돼 있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들은 모두 둥글다. 따라서 지상의 여러 가지 생명체중 생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공간의 형태를 건축 공간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형태와 길흉

건물이 갖고 있는 기운을 분석할 때는 건물 형태와 유사한 산의 기운을 적용시키면 된다. 산이 형태에 의해 생기 유무가 결정 되듯, 주택이나 건물은 형태에 따라 생기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건물 중에서 지면에 접하고 있는 1층 평면 형태는 건물 전체 형태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산 형태는 지도상에 등고선으로 나타나며, 등고선은 건물 평면도의 윤곽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산의 형태가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고 세 가지 품격으로 구분되며, 또 오행으로 구분되듯, 건물 평면의 형태도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고 세 가지 품격과 오행으로 구분 된다. 이러한 건물 기운으로부터 건물이 명당과 흉가도 구분된다.

제 5 장 쌍둥이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

전남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중촌마을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의 삼일아파트 단지는 쌍둥이 출산이 많아 화제가 된 곳이다. 하여 쌍둥이 출산이 많은 두 마을을 직접 현장 답사하여 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마을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쌍둥이 출산과 관련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제 1 절 전남여수 중촌마을

1. 마을의 역사와 유래



<그림5-1> 전남 여수 소라면 중촌마을²⁴⁾

24) 국토지리정보원, 축척 1 : 25,000, 2003년 촬영, 2004년 조사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의 중촌마을을 2006년 8월 답사하였다.

국사봉 기슭아래 터를 잡은 소라면 현천리에는 120여호에 300여명이 어우러져 살고 있다. 국사봉을 중심으로 우측은 오룡마을, 좌측은 소현천마을²⁵⁾, 중앙에 중촌마을을 두고 서로 이웃하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시골농촌이다.

이 중 논자가 방문한 중촌마을은 쌍둥이 출산이 유독 많은 마을로 원인을 분석하려는 학계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대의학으로도 그 정확한 이유를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하였다.

중촌마을에는 현재 50여 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2000년 초까지만 해도 75가구 가량이 거주하였고, 최근 몇 년사이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이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마을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에 앞서 먼저 산세와 지세를 살펴보았다.

중촌마을은 연화부수물에 뜬 연꽃 형국이라고 말하는 산줄기에 둘러싸여 있다. 현천이란 지명은 마을을 흐르는 물의 물줄기가 약하다고 하여 검을 현(玄)자를 써서 현천이라고 했다고 하며, 중촌이란 마을 이름은 오룡과 소현천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2. 지리적 분석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살풍을 막아주는 아늑한 장소에 자리잡았다. 주산은 <그림 5-2>와 같이 내룡맥이 함차게 뻗지는 않았으나 좌, 우출맥과 중출맥이 세 줄기로 사이좋게 내려왔고, 좌로는 청룡이 우로는 백호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안았다.

주산(현무)은 혈에 지기를 직접 전달하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산세의 규모나 기상이 청룡이나 백호, 주작보다 크고 힘차야 한다.

25) 선천마을이라고도 함.



<그림5-2> 전남 여수시 중촌마을 전경



<그림 5-3> 중촌마을 가구의 구조

이곳 중촌마을의 현무는 청룡과 백호 그리고 가까운 안산(주작)과는 잘 어울려 있었다. 그리고 중촌마을에서 전면에 가까운 안산 넘어, 마을에서 약 8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산²⁶⁾인 고락산이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림5-4> 전남 여수 중촌마을의 조산인 고락산

<그림5-4>과 같이 가까운 안산은 낮고 평편하였으며, 안산너머로 보이는 조산은 그 형상이 임신한 여성이 분만하기 위해 누워있는 모습과 흡사하였으며, 쌍봉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또한 좌측 북·동측에 위치한 비봉산의 형태 또한 쌍봉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중촌마을의 쌍둥이 출산에서 특이할 만 한 점은 초산(初産)의 경우 쌍둥

26) 조산이란 집터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안산보다 더욱 멀리 있는 산을 말한다.

이 출산이 거의 없고, 둘째 또는 셋째에서 쌍둥이 출산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마을주변지형을 세부적으로 관찰하던 중 안산과 조산의 기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거리 면에서 볼 때 안산이 조산보다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풍수지리적 해석으로 보면 안산의 기운이 먼저 작용하고, 조산에서 발생한 기운은 안산의 기운보다 늦게 전달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기운이 이곳에서도 작용하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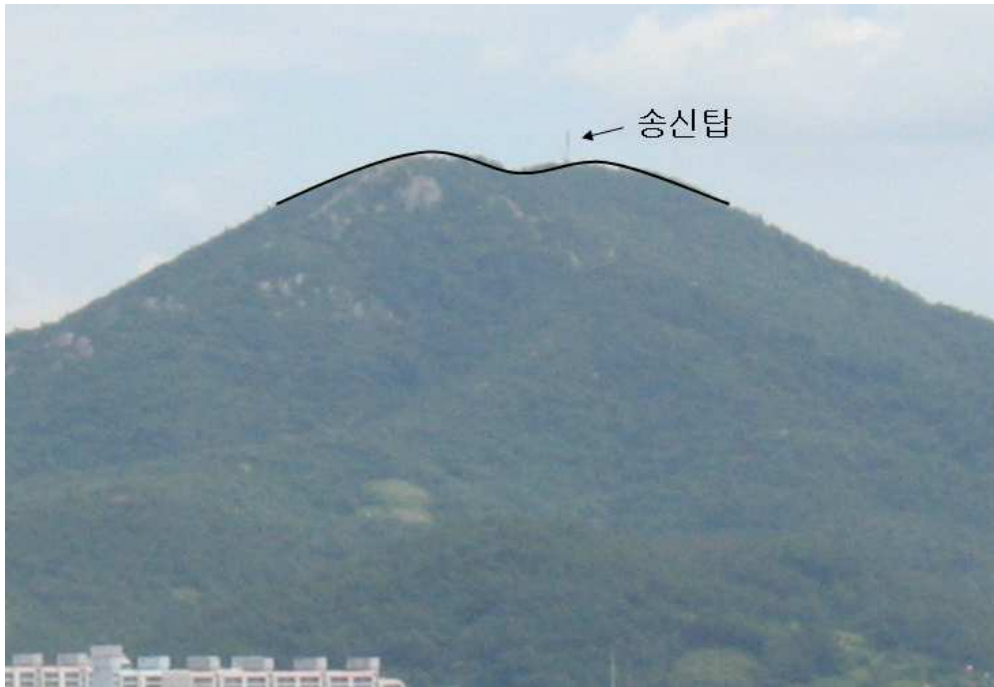
마을 뒷산인 국사봉(주산)에 올라 마을을 살펴보니 현촌리에 위치한 3곳의 마을 중 선천마을과 오룡마을에서는 조산인 고락산의 쌍봉이 각 마을의 앞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중촌마을에서는 전면으로 고락산의 쌍봉이 아주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영향으로 중촌마을에서는 이웃하는 선천마을과 오룡마을에서 나타나지 않는 쌍둥이 출산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마을주민과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3. 마을의 생활습관

중촌마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 쌍둥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 정홍균(78세)씨와 22세에 중촌마을로 시집와 32세에 쌍둥이를 출산한 김기심(82세)씨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논자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에 응하였다.

인터뷰에 응한 마을 주민 중 실제 정홍균(78세)씨의 부친을 비롯한 삼형제 모두가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정홍균씨를 비롯하여 인터뷰에 응한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이 쌍태봉의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이 많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1980년대 초반 2개의 쌍태봉 중 한곳에 송신탑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5-5> 참조



<그림5-5> 송신탑을 세운 쌍봉산의 모습

일본이 한국인의 정기를 말살시켜 대를 잇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의 주요 산마다 쇠말뚝을 박아놓고 식민지화하려 했던 것처럼 쌍봉산에 송신탑을 세운 이후로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한때는 75가구가 거주하는 큰 마을이었던 중촌마을이 현재는 50여가구로 줄어들었고, 더불어 출산이 가능한 젊은이들이 타지로 떠나 출산의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주식과 수질의 영향 때문은 아닌지, 예부터 내려오는 씨족사회를 구성하여 집단을 이루어 살아온 집성촌임을 감안하였을 때 유독 쌍둥이 유전자가 많은 모계 유전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다시 중촌마을의 제반 환경을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먼저 이곳 중촌마을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을 하였다. 50여호의 가구 중 쌍둥이 출산의 경험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모두 공동으로 관리하는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질에서 오는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로 섭취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으나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

하였고, 여느 지역 사람들과 다름없이 벼농사를 지어 쌀을 주식으로 하고 밭에서 키운 고구마, 콩, 채소 등을 일반적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그 동안 쌍둥이출산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유전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등 일반 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조사도 줄을 이었는데 쌍태봉의 영향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다수의견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쌍둥이의 출산빈도는 민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의 경우 150~200회에 1회(약 0.5%~0.6%)²⁷⁾의 비율로, 네덜란드의 1.6%, 스웨덴 1.5%, 노르웨이 1.4%, 독일 1.3%, 이탈리아 1.2%, 프랑스 1.1% 등의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한국의 경우 그 빈도가 훨씬 적은 편이다. 하지만 논자가 방문한 중촌마을의 경우 1880년 초부터 1980년 초까지 약 100년 동안 38쌍의 쌍둥이가 출산 된 기네스북의 기록이 마을회관에 보관되어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마을에서는 75가구에서 38쌍의 쌍둥이가 태어났으며, 13회 분만에서 1회 쌍둥이가 출산한 비율(7.6%)에 해당한다.

중촌마을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 쌍봉산(335m)은 여천시와 여수시 사이에 있는 산으로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에는 고락산(鼓樂山)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중촌마을 사람들은 산봉우리가 두 개로 보인다고 하여 쌍봉산이라 부른다. 거의 같은 높이의 봉우리는 남동쪽과 북서쪽에 200m 가량의 거리를 두고 서있다.

4. 산모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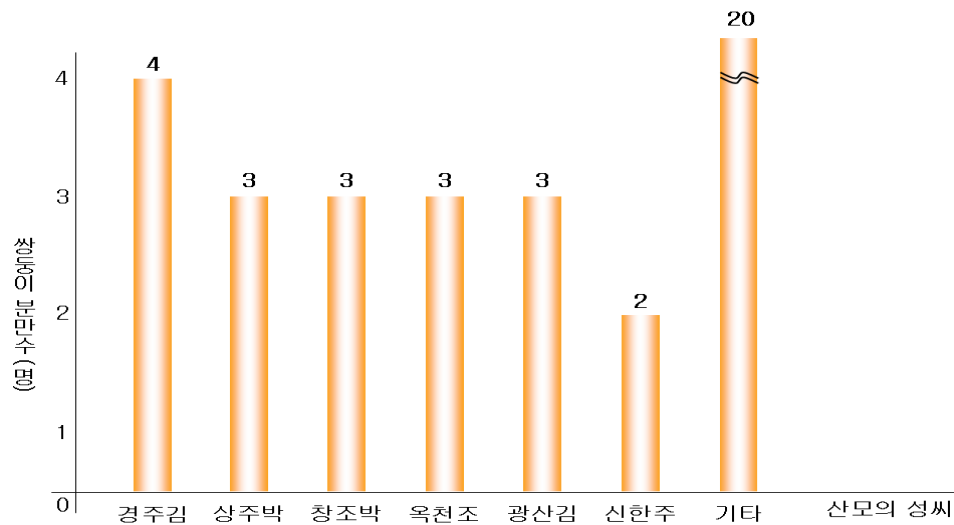
기네스북은 결과에 대한 단순한 기록에 불과하다.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논자는 쌍둥이 출산의 원인을 다각도로 알아보려고 유전적인 원인을 살피기 위하여 성씨별 쌍둥이 출산율을 조사하였으나 한 성씨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며, 여러 성씨(경주김씨를 비롯한 12개 성씨)가 쌍둥이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성씨와 쌍둥이 출산은 무관함

27)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쌍생아’

을 확인하였다. <표5-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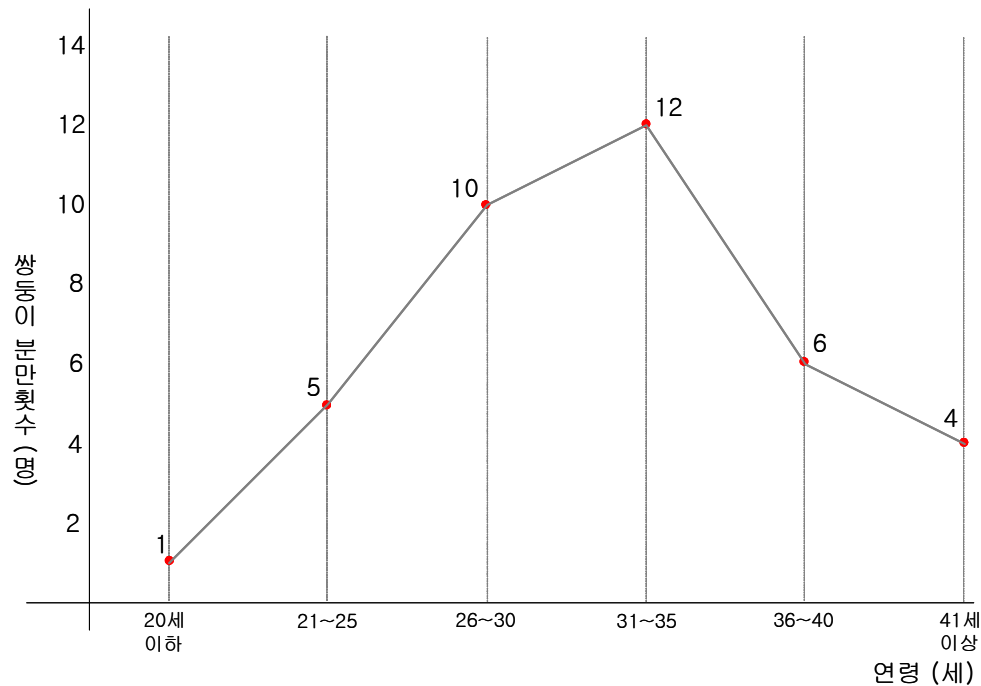
<표5-1> 산모의 성씨에 따른 쌍둥이 분만수²⁸⁾



또 다른 특징은 초산의 경우 쌍둥이 출산이 거의 없고, 초산(初産)이후부터 쌍둥이 출산이 나타났는데 이는 산모가 쌍봉산을 바라보는 횟수와 시간이 많아지는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자연스럽게 쌍태몽의 정기를 받게 되어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sbs 서울방송 백만불미스테리, ‘유오성의 쌍둥이마을의 비밀’에서 발췌한 자료이용

<표5-2> 1880년 초부터 1980년 초까지의 연령별 쌍둥이 분만수²⁹⁾



5. 가옥의 구조

중촌마을의 가옥구조는 한일자(一)형으로 안방이나 부엌의 방향이 같았고, 마을의 가옥 대부분의 좌향은 진좌술향(동남향)이며, 쌍봉산은 거의 동쪽(동쪽에서 남쪽으로 약 15도에 위치)에 있었다.³⁰⁾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논자는 쌍둥이출산의 원인을 가옥구조의 풍수지리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쌍둥이 출산이 있었던 집의 가옥구조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쌍둥이 출산이 있었던 집의 경우 집의 좌향과 상관없이 대문이 쌍봉산을 향하고있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대문이 쌍봉산을 향하고 있어도 부속건축물에 의해 쌍봉산이 가려져있는 집은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29) 유오성의 쌍둥이마을의 비밀, sbs 백만불미스터리,

30) 최명우, 풍수답산기<21>,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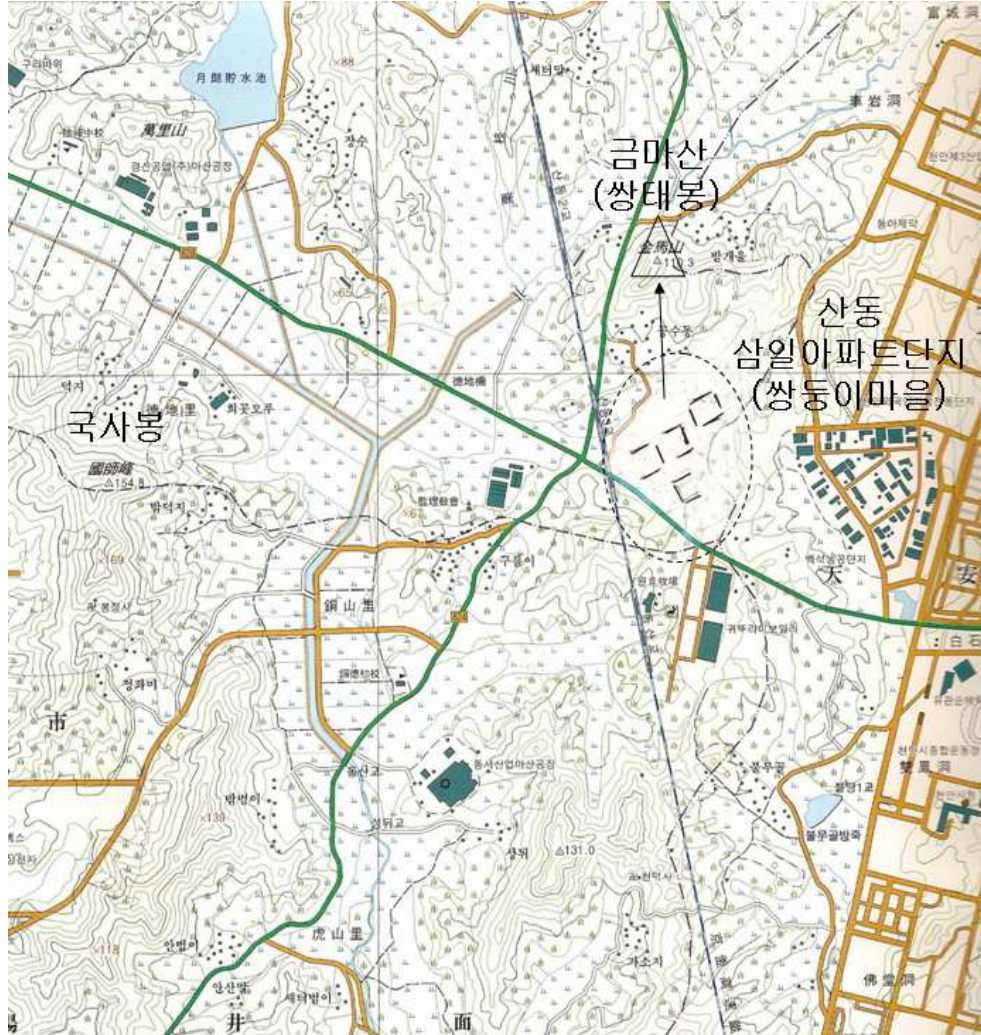
대문이 쌍봉산방향으로 나있는 집에서만 쌍둥이가 태어난 이유는 집에서 대문을 통할 때 마다 자연스럽게 쌍봉산을 마주보게 되는데, 쌍봉우리가 바라다 보이는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쌍봉산의 정기를 받게 되어 쌍태아를 임신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판단한다.

중촌마을의 지형을 살펴보면 쌍봉산이 있는 동쪽 외에 앞으로는 만봉산, 좌우측에는 매산과 국사봉, 뒤에는 큰골산 등 200M 높이가 되는 산들이 가깝게 둘러싸여있는 긴 타원형 분지모양이다. 그러니 마을 주민의 시선은 시원스레 트여있는 동쪽의 쌍봉산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실제로 중천마을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는 오룡마을이나 선천마을에서는 고락산의 쌍봉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오룡마을이나 선천마을에서는 쌍둥이가 한 쌍도 태어나지 않았다.

제 2 절 충남 아산 산동마을

1. 마을의 역사와 유래



<그림5-6> 충남 아산 산동마을³¹⁾

행정구역상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에 위치한 삼일아파트단지는 낮은

31) 국토지리정보원, 축척 1: 25,000, 1991년 촬영, 2005년 조사,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 조성됨.

야산을 깎아지른 높고 낮은 이 아파트 단지로, 11개동 20여평 규모의 1440세대가 살고 있다. 삼일아파트는 1997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9년째 되는 소시민아파트 단지이다. 단지의 우측으로는 천안공업단지가 넓게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는 신도시로 형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2. 지리적 분석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마을에 위치한 삼일아파트단지는 넓은 들판에 있는 낮은 야산을 지형 그대로 이용하여 깎아 세운 소규모 아파트 단지였다. 좌측으로 낮은 산이 청룡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도로확장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멀리 너머로 보이는 외청룡인 국사봉(154.8m)이 쌍봉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단지 내로 들어가 아파트 전면에 단지에서 약 4km 떨어져 있는 안산(조산)인 금마산(110.2m)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산 정상이 쌍봉으로 이루어져있었다. 아파트 낮은 층수에서는 낮은 안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높은 층에서는 금마산의 쌍봉이 아주 잘 보였다. <그림 5-7> 참조

아파트 입주세대인 1440세대 중 2005년까지 40여 쌍의 쌍둥이 출산이 이루어졌으며, 중촌마을과 달리 세대주민의 연령이 젊어 출산이 진행 중이며, 실제로 2006년 전반기에도 두 쌍의 쌍둥이 출산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어떤 임산부는 타지에서 임신하여 이곳으로 입주한 후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그 원인에 대하여 쌍봉의 정기를 거주하는 동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곳 지형을 살펴 보기위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중촌마을에서와 같이 금마산의 쌍태봉이 단지에서 전면으로 바라보였다. 더욱이 좌측으로도 국사봉의 쌍봉이 멀리 보였는데 아파트단지 앞 큰 대로를 건너 가까이가면 더 잘 보일까하여 자리를 옮겼으나 낮은 앞산에 가려 국사봉의 쌍봉산이 보이지 않았다.



<그림5-7> 충남 아산 산동마을의 조산인 금마산

3. 쌍둥이마을 지형의 공통점

통계적으로 쌍둥이가 출산되는 확률은 약 200회 분만에 1회 정도로 약 0.5%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문 답사한 전남 여수의 중촌마을의 경우 75가구 중 약 500회 분만 중에 38쌍의 쌍둥이가 태어나 쌍둥이 출산빈도가 약 7.6%에 해당되고, 이는 한국의 쌍둥이 출산빈도인 0.5%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가 된다.

충남 아산의 산동마을의 삼일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 1,440세대 아파트 입주민 중 1997년 입주를 시작하고 2006년 전반기까지 9년 동안 42쌍의 쌍둥이가 출산되었다. 입주민의 전출입이 잦은 편이어서 아파트 주민의 출산횟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파트의 입주가 1997년 이후 시작된 점과 현재 젊은 부부들의 전 출입이 잦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촌마을의 쌍둥이 출산빈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출산의 원인을 다각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탐문조사를 한 결과 수질, 식습관, 유전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풍수지리적 입지를 살펴보던 중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사신사 중 조산이 쌍봉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둘째, 마을의 외측으로 또 다른 쌍봉형태의 산이 있었다.

셋째, 이곳 산동마을 역시 소라면 현천리에 위치한 중촌마을과 같이 안산 밖의 쌍봉을 자연스럽게 바라다 보이는 가옥에서 유독 쌍둥이 출산이 많았다.

제 6 장 장수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도별 고령자 거주마을 현황에 따르면 장수 마을은 전국적으로 119개 지역에 이르고, 이 중 전남지역에 약 21%에 해당되는 25개 마을이 지정되어있다. 대표적으로 담양, 함평, 영광, 곡성, 보성, 구례, 진도 등이 그곳이다. 이중 특히 구례군에 집중되어있는데 백운천 마을이 대표적이다.

경기지역 또한 9개 마을이 지정되었으며 전국 분포 대비 약 7.6%에 해당된다. 그 중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마을은 2005년 농촌진흥원에서 선정한 ‘건강장수 100대 마을’로 선정되었다.

논자는 두 마을의 풍수지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2006년 8월 전남구례의 백운천 마을과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의 지세 분석과 주민 설문을 실시하였다.

제 1 절 전남 구례 백운천마을

1. 마을의 역사와 유래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구례군은 전남 북동부와 지리산의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다.

백제 때에 구차례현이라 불리었고, 신라 흥덕왕 때에 구례현으로 고쳐 불리었으며, 곡성군에 속하였다. 고려 초는 남원부에 속했다가 인종 때에 감무가 파견됨으로써 비로소 주현으로 승격되고, 말기에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석주관은 마한과 진한의 경계 혹은 백제와 신라의 경계였다는 설이 전해진다.

조선 태종 때는 현감이 파견되고, 그 후 역모사건으로 연루되면서 남원부에 속했거나 다시 현으로 복구되기를 반복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가옥이 137호이고, 인구가 677명이라 기록되어 있어 매우 작은 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를 기준으로 하면 작은 아파트 단지에 불과한 가구와

인구에 불과하다.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으며 기름진 땅’을 뜻하는 ‘고래실’을 전라도의 사투리로 표현하면 ‘구례실’, ‘구례논’, ‘구렛들’로 구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말이다. 왜냐하면 전남, 전북, 경남의 경계를 이룬 삼도봉을 꼭지로 삼아 흐른 섬진강을 감싼 구례는 산흙이 흘러내려 기름진 ‘구례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택리지에서도 ‘구례 땅은 비록 들은 좁지만 농산물의 수확은 많고, 골짜기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니 가뭄타는 일이 적은 곳이다’ 라고 하였다.

2. 통계 분석

2006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OECD 가입국의 평균수명이 남자 75.4세, 여자 81.4세이고, 한국의 경우 남자 75.1세, 여자 81.9세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이미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이 7.2%를 상회하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4%로 고령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건강수명이 향상되어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한국도 세계 장수국 중 하나임을 입증한다.

장수의 기준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달리 정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구 1만 명 당 백세인 10인 이상을 장수마을로 지정하는 등 100세인을 대상으로 장수마을을 지정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장수도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기준인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의한 ‘50명 이상의 마을단위나 순수자연부락으로 주민등록 상 65세 이상 노인 중 80세 이상의 비율’의 장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표6-1> 전국 장수마을 현황³²⁾

(단위 : 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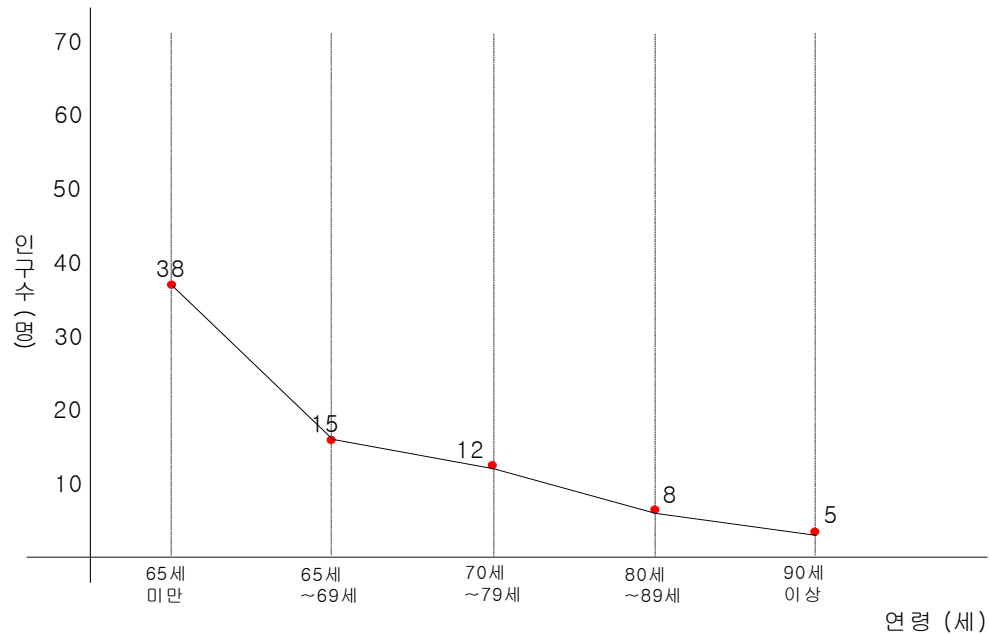
32) 2003년 보건복지부 제 7회 노인의 날 관련 보도자료(2003년 9월 30일 배포)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개 소	-	-	-	4	1	-	1	9	9	8	11	11	25	27	9	4	119

※ 장수도 선정기준 : 50명 이상의 마을단위나 순수자연부락으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중 80세이상인 30% 이상인 경우(시설 입소노인 제외)

간전면 윤천리에 있는 백운천마을은 장수하는 노인의 장수도 비중이 32.5%에 이르는 장수마을이다.

<표6-2> 백운천마을의 인구분포



주) 가구수 : 37가구

총인구 : 78명

65세 이상 노인 : 40명

80세 이상 노인 : 13명

장수도 : 32.5% (13명/40명)

백운천마을은 서른일곱가구에 65세 이상인 노인이 40여명에 이르고 80세 이상도 10명 이상이다. 98세 시어머니와 73세 며느리가 한집에 살며 자식들 잘 되는 것 보는 것을 큰 낙으로 산다면서 채식과 노동, 그밖에 별다른 장수비결은 없다고 하면서 산 좋고, 공기 좋으니 오래 산다고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에서 웃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다.

<표6-1>의 장수마을 현황에서와 같이 장수 마을은 전국적으로 119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이 중 전남지역에 약 21%에 해당되는 25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구례군에 집중되어있는데, 의료시설이나 노인 여가시설, 복지시설 등이 부족한 전남지역에서 장수마을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지역의 환경요인이 인간의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구례의 지리적 특징

구례는 지리산에서 가지 천 해발 1,000m 가까운 험준한 산들이 사방을 감싸 안은 그 안쪽에 자리한 분지에 해당되어 평야가 적다. 하지만 군의 중앙을 남류하는 서시천이 섬진강에 합류하면서 서시천의 양쪽 사면과 섬진강과의 합수점 부근에 비교적 넓은 평야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군의 80%는 산지로 주산물은 구례분지 중심의 곡물과 원예작물이고, 근래에는 밤의 생산도 많고 산수유는 전국 최대의 주산지이다.

전라남도 지리산자락에 위치한 구례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하여 남부와 북부로 지맥을 달리하고 있다. 구례읍이 위치한 북부는 백두대간의 종점인 지리산의 기맥이 남으로 이어지는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노고단(1507m) 형제봉(912m)과 이어져 남진한 용맥을 경계로 토지면과 마산면이 구분되고, 마산면의 북서방향에는 광의면과 산동면이 자리잡고 있다.



<그림6-1> 전라남도 구례군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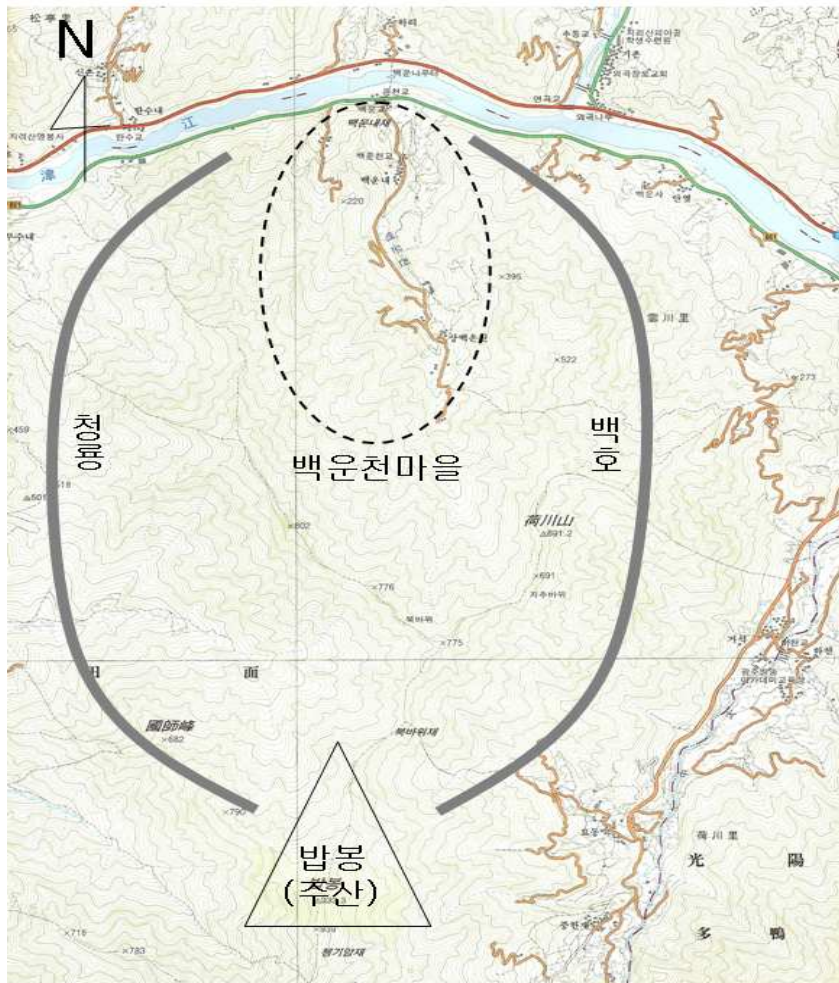
33) 영진7만5천지도, 영진문화사, 축척 1:75,000

하지만 구례읍은 서시천에 의해 지맥이 약하게 이어지고, 백두대간의 만북대(1,433.4m)에서 서진한 용맥이 다름재(1044m)와 밤재를 넘더니, 바로 용맥을 남진시켜 견두산(774.2m), 천마산(653.8m), 깃대봉(694m), 형제봉(622m)으로 용출하더니 천황봉(695m)으로 솟고, 용맥을 다시 동진시킨 후 곧 바로 남동진시켜 섬진강과 서시천의 합수점을 향하여 뻗어온 용맥에 자리잡았다. 따라서 섬진강 북쪽의 구례 땅은 지리산을 조상으로 삼아 형성된 지형이다.

구례의 기후를 살펴보면,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강우량은 많은 지역에 속한다. 겨울이 춥지 않은 것은 사방에서 산이 에워싸 북서풍을 막아주고, 나아가 구례가 지리산 남서면에 자리 잡아 일조량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 여름이 시원한 것은 울창한 숲이 기후를 조절하면서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계곡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더위를 식혀준 결과이고, 강우량이 많은 것은 여름의 남동풍이 대륙 쪽으로 불어오면서 높은 지리산을 넘지 못한 채 뒤편(Fohn)현상을 일으키며 다량의 수증기를 비로 내리기 때문이다. 구례의 땅은 어떤 가뭄에도 논이 매 마른 적이 없다고 전하며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편안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하니 이래저래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적당하다.

4. 백운천마을의 풍수지리적 분석



<그림6-2> 전남 구례 백운천마을의 사신사34)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례에 속해 있으면서 지리산과 전혀 다른 곳에서 뻗어온 옥맥에 자리잡은 백운천 마을이 있는 섬진강 남쪽은 한반도의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고 백두대간은 경남양산의 취서산(영취산 1,081.2m)에서 경남, 호남정맥을 출맥시켜 장수와 진안의 땅을 형성하고 다시 전북 진안

34) 국토지리원 지도, 축척1:25,000

의 운장산(주화산 1,125.9m)에서 호남 정맥을 따라 전라북도 남부와 광주 무등산(1186.8m)을 거쳐 장흥의 사자산(667.5m)까지 남진하더니, 곧 용맥을 북동진시켜 보성, 별교, 승주를 거쳐 구례남부의 백운산(1217.8m)으로 우뚝 솟더니 하동에서 섬진강을 만나 긴 용맥의 여정을 마친다.



<그림6-3> 전남 구례 백운천마을의 산세

따라서 백운천은 지리산이 아닌 백두산(2,744m), 경남양산의 취서산, 전북진안의 운장산, 광주의 무등산, 전남장흥의 사자산, 전남순천의 조계산,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에 위치한 마을이다. 따라서 백운천마을의 태조산은 전북진안에 솟아있는 운장산이 된다.

백운천 마을은 호남정맥이 백운산을 조금 못미친 지점인 파리봉(1127m)에서 북진한 용맥이 밥봉(934.6m)으로 솟아오르고, 밥봉에서 북진한 용맥이 갈라지며 동쪽의 용맥에 상백운천이 자리잡고, 서쪽의 용맥에는 백운천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백운천 마을의 주산은 밥봉이 된다.

주산인 밥봉(934.6m)에서 용맥은 두줄기로 출맥하여 내려왔는데 그 중 동북방의 것은 상하로 기복이 심하고 좌우로 요동치다가 섬진강을 만나

전진을 멈추었다. 백운천마을은 이 용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춘 곳 (208m)에서 동진하는 지맥이 출맥되고 이 맥이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지며 마을 앞쪽의 계류를 만나 몸을 낮춘 경사면에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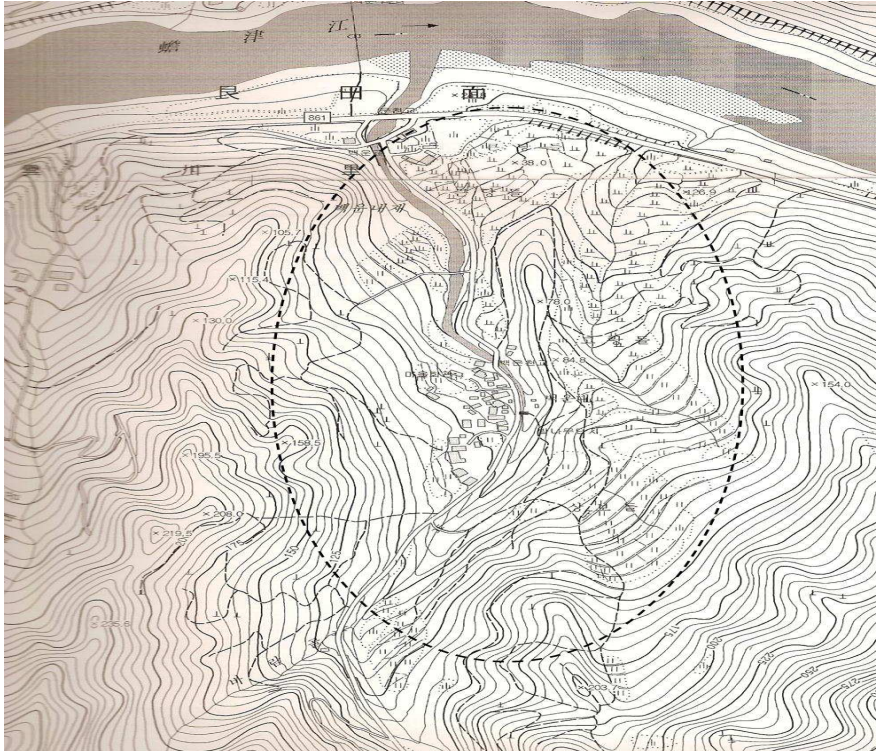
내룡의 기세가 장엄하고 활달하지만 입수된 내룡은 경사가 급하여 좋지 못하다. 또한 마을 중심을 관통한 입수룡은 미곤으로 내려오다 곤신으로 입수하였는데 지질적 요건은 단단한 암반이거나 잡돌이 섞여 지기는 적은 곳이다.

남쪽의 상백운천마을과 바람골에서 흘러온 물이 서로 합수한 다음 마을 앞쪽을 둥글게 감싸흐르는 백운천다리와 백운교를 지나 북쪽의 섬진강과 합류한다.

섬진강의 큰 바람은 관쇄된 수구로 인해 직접 마을로 불어오지 못하고 남쪽에서 흘러온 바람은 마을 남쪽의 낮은 백호에 의하여 차단되어 마을로 직접 닿지 않고, 들에서 생긴 바람역시 낮은 외청룡에 의하여 기세가 약해지니, 마을은 살풍이 닥치지 않는 포근한 입지를 이룬다.

또한 마을 앞쪽에는 일자문성의 주작이 안산이 되고 높이는 눈썹 높이의 길상이고, 너머의 귀봉이 손님격으로 마을을 조용하니 형기적으로 보아 지세가 잘 짜여진 마을이다.

마을을 구성한 사신사를 살펴보면 주산인 밥봉을 중심으로 청룡과 백호가 높지 않게 자리하여 남쪽의 세찬 바람을 막아준다.



<그림6-4> 백운천마을의 구조³⁵⁾

마을의 입지를 살펴보면 사방이 높지 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마을의 토지는 비옥한 편이지만 넓은 지역은 아니고, 지세가 급하다.

집의 좌향은 대부분 동향과 북향을 이루고 있었는데 남향을 선호하는 한국에서 크게 선호되지 않는 동향과 북향을 이루고 있는 이곳 마을의 좌향은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진 길한 좌향으로 보인다.

또한 사방을 둘러싼 높지않은 산들과 좌우의 낮은 청룡과 백호가 남쪽의 세찬 바람을 막아주어 마을에 살풍이 불어오지 않는 점을 보아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가 모이는 살기 좋은 마을이다.

35) 국토지리원 지도, 축척 1:5,000

제 2 절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마을

1. 마을의 유래와 역사

안골마을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1리로 2005년 농촌진흥원에서 선정한 ‘건강장수 100대 마을’로 선정된 장수마을이다.

1) 남양주시

남양주 지역은 수석리 선사 유적지와 토성에서 나타나듯이 한강을 중심으로 선사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영역으로 고니국에 속해있었고, 기원 후 4세기 후반에는 백제가 고구려에 대항하여 아차산성을 주축으로 방비한 것으로 보아 백제 영토였고, 그 후 고구려는 396년 에 남하정책으로 고구려의 영토에 속하게 된다. 551년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하류지역을 되찾음으로써 일시적 백제의 영역으로 복귀했다가 2년 후 553년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여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림6-5> 경기도 남양주시 안골마을

신라는 3국을 통일하고 확대된 영토를 9주 5소경의 지방체제로 개편하여 고구려의 옛 영토에 3주를 두었으며 남양주는 ‘한주’에 속하게 된다.

이후 고려 성종 2년(983)에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게 되며 고려 문종 21년(1067)에는 지리도 창설에 의해 양주가 남경으로 승격된다.

숙종 원년에 김위제는 상소문에 도선이 남경을 답사하고 ‘비기’에 기록하기를 ‘국도 송악은 뿌리가 가늘고 약하며 지엽도 보잘것없으니 백년을 버티면 나라가 망한다. 남경은 사해의 어룡이 한강으로 모여들 것이요 나라와 백성이 편안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하였다.

한강 양지쪽은 (강북)왕업이 장구하며 온 세상을 압도하고 왕실이 번창할 것이니 이는 실로 명당 터라 하였다. 또 답사기에 ‘후대에 현명한 사람이 인간의 운기를 알아낸다면 한강을 넘지 말아야 그 운세가 오래간다’고 하였고, 삼각산 명당기에 이르기를 눈을 뜨고 머리를 돌려 산세를 두루 살펴보니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한 곳이 명당이니 음과 양이 맞아 겹겹이 꽃이 피니 자손이 번창하고 국가를 수호할 것이다 하여 숙종 6년(1101) 남경(양주)에 궁궐을 완성하게 된다.

이후 200년간 지속된 남경(양주)는 직제개편이 거듭되면서 한양의 일부, 포천의 일부 또는 광주의 일부로 지역이 나뉘게 된다. 이후 1980년 4월 1일에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었고, 1986년 1월 1일에 남양주군에서 구리시를 분리시켰고, 1989년 1월 1일 미금시를 분리시켰다. 이어 1995년 다시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통합하여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가 탄생되었다.

2) 와부읍

한말까지 이 지역의 대부분이 양주군 와공면과 공주군 초부면, 동부면에 속해있었다. 1906년 초부면이 양주군에 편입되고, 1941년 행정구역 통폐합됨에 따라 와공면에 와(瓦)자와 초부면의 부(阜)자를 따서 와부면이라 하였으며 덕소, 도곡, 팔당 등 11개리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와공(瓦孔)이란 한옥에 쓰이는 기와를 주로 생산하던 지역으로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최고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도심 부락에 모여 살았으며 지금까지 그 대를 잇고 살아 각종 궁궐이나 사찰의 복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초부(草阜)란 송촌리 상봉리 북한강변에 넓은 곡창지대에 풍부한 먹을거리로 60년대 초까지도 농업이 위주였던 시대에는 덕소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지역이다.

3) 도곡리

도곡1리에는 갑산이 도곡3리에는 적갑산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갑(甲)은 갑옷, 첫째를 의미하며, 적(赤)은 붉을 적으로 산중에 으뜸되는 갑산. 단풍이 아름다운 으뜸되는 적갑산이란 뜻도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한양과 가깝고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며 산과 구릉지대가 많아 왕실이 강무장이나 사냥터로 자주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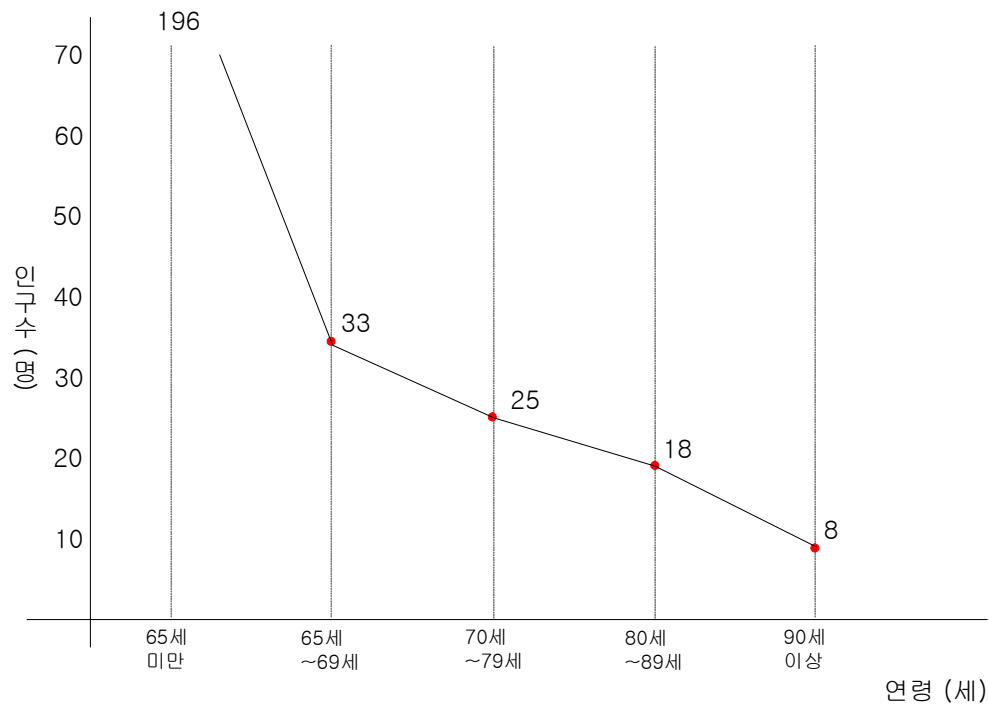
강무는 조선의 만조백관과 군대가 일체가 되어 야영을 하면서 국가의 보유를 위하여 군사행위를 하는 거국적 행사였다. 1447년(세종 29년) 8월 기록에 의하면 기병, 보병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갑산, 적갑산으로 불렸으며, 강무시 적갑산 중앙부분에 제바위란 곳에 제단을 쌓아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제바위 하단에 강무시 임금이 기거하던 외상릉이 있어 지금까지도 제바위, 외상릉이라 불리고 있으며 도곡은 질그릇 도(陶)에 계곡 곡(谷)으로 질그릇을 굽던 계곡을 뜻한다. 갑산자락의 질 좋은 황토 흙으로 기와, 도기, 생활자기를 구웠던 곳으로 곳곳에 가마 흔적이 있으며 특히 도곡초교와 도심 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초기부터 60년대까지 도자기가 번성하던 곳이다.

현재 도곡1리 와부보건지소가 있는 안 동네가 금대산 안쪽에 자리 잡아 안골이며, 지역 내 산수가 화려하고 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폭포와 노송, 온갖 기화요초가 산재하여 중종반정의 일등공신인 박원종대감에게 정자를 지어 하사하게 된 곳이기도 하다.

2. 통계분석

이 마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84명이나 되는 등 전체 주민 280명의 약 30%가 건강한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서울근교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인지 20~30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대별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다.

<표6-3> 안골마을의 인구분포



주) 총가구수 : 100 가구

총인구수 : 280 명

65세 이상 노인 : 84명

80세 이상 노인 : 26명

장수도 : 30.9%

안골마을은 2005년도 농촌진흥원에서 ‘건강장수100대 마을’에 선정되어

장수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들에게 생산적인 일거리를 제고함으로써 질병 없이 건강한 노년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에서는 안골마을에 조리실 등 마을생활 환경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러닝머신, 안마의자, 상하지 강화운동기 등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건강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골마을의 이장 박근순(50세, 남)씨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프로그램에 아주 적극적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즐겁고 신명나는 건강한 장수마을이 되도록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며 새로운 장수문화정립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3. 안골마을의 풍수지리적 분석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1리에 위치한 안골마을은 농촌진흥원에서 지정한 장수마을 중 한곳이다.

금대산 안쪽에 위치한 안골마을은 지역 내 산수가 수려하고 경관이 빼어나기 뿐만 아니라 산세가 삼태기를 얹어놓은 듯한 형상으로 거북모양을 하여 포근하고 살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좌로는 청룡이, 우로는 백호가 마을을 감싸 안아 조용하니 형기적으로 보아 지세가 잘 짜여진 마을이다.

북쪽으로는 천마산줄기가 흐르고, 동으로는 갑산(546m)에 이르러 힘있게 솟아오른 후 남진하여 적갑산(564m)에 이르고 다시 남동진하여 예봉산(683m)에 이른 줄기는 산세가 험준하여 그 지세가 당당하고, 평지는 한강을 끼고 돌아 흐른다.

한강 맞은편은 검단산 줄기가 맥을 이루는 하남시이고, 북쪽은 화도읍, 동쪽은 운길산(610m) 줄기에 조안면과 닿아있다. 또한 갑산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미사리 쪽으로 쭉 뻗어내려선 산이 금대산이며, 이 금대산의 능선을 기준으로 덕소와 도곡리, 도곡리와 월문리에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금대란 금터 최고의 명당터이며 금대를 임금의 혁대로 허리띠를 풀어야 왕자가 태어날 터라 하였다. 금대산 자락에 중종반정의 일등공신

이던 영의정 박원종의 생가와 유택이 금대산 안골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금대산 남쪽 기슭에는 수많은 명문대가의 유택들이 자리 잡고 있다.

금대산을 기준으로 동쪽이 도곡리인데 도곡은 질그릇 도(陶)에 계곡(谷)으로 질그릇을 굽던 계곡으로 갑산 자락은 질 좋은 황토 흙으로 되어 있어 마을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없이 좋은 곳이라 하겠다.

주산인 갑산(546m)을 와부보건소 방향에서 바라보면 성숙한 여인이 반듯하게 누워있는 멋진 모습이 연출된다. 갑산에서 흘러내린 조조봉 쪽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갑산과 조조봉의 공제선(산과 하늘이 닿는 부분)을 바라보면 특히 여명이나 일몰직전 더욱 선명하게 여인이 긴 머리를 뒤로 풀어놓고 반듯하게 누워 있는데 그 형상이 이마, 속눈썹, 긴 목선, 심지어 봉긋한 젖가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면 불수록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림6-6> 참조.



<그림6-6> 안골마을의 미녀산

그래서 이곳 안골마을을 주민들은 일명 여자산, 미녀산이라 부르고 있다. 그 미녀산 아래 안골마을은 여인들의 기운이 보다 드세어 바람이 많이 난

다는 마을의 속설이 있어 가정불화가 많았으나 남서쪽에 세워진 아파트 건축 이래 음기를 막은 후 마을의 평온을 찾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안골마을은 타지에 나가살던 사람들도 노후에는 돌아가 안정을 찾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산과 강이 조화롭게 형성된 곳이다. 금대산 안쪽에 위치한 안골마을은 지역 내 산수가 수려하고 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산세가 삼태기를 얹어놓은 듯한 형상으로 거북이 모양을 하여 포근하다.

좌로는 청룡이, 우로는 백호가 마을을 감싸 안아 살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조용하니 형기적으로 보아 지세가 잘 짜여진 마을이다.

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통계적으로 쌍둥이가 출산되는 확률은 약 200회 분만에 1회 정도로 약 0.5%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문 답사한 전남 여수의 중촌마을의 경우 1880년 초 부터 1980년 초 까지 38쌍의 쌍둥이가 태어났고, 쌍둥이 출산빈도가 13회 분만에 1회 출산으로 약 7.6%에 해당된다. 이는 한국의 쌍둥이 출산빈도인 0.5%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 출산이 많은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 중촌마을과 충남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의 삼일아파트단지를 직접 답사하여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의 지세를 분석함으로써 풍수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변환경 분석을 통하여 쌍둥이 출산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으며, 선행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지세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장수마을로 알려진 전남 구례의 백운천마을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쌍둥이마을과 같은 방법으로 지세의 영향으로 마을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여 장수마을의 지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쌍둥이마을의 경우 쌍봉산을 안산으로 둔 마을에 오래 거주하면 그 기운을 받아 쌍둥이 출산을 하게 된다는 풍수지리 이론을 착안하여 전국 쌍둥이 출산빈도 대비 지역의 쌍둥이 출산빈도가 높은 전남 여수의 중촌마을과 충남아산의 산동마을의 삼일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세를 분석하여 주변의 지세가 쌍둥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남 여수의 중촌마을과 충남 아산의 산동마을 주변지형이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산 넘어 조산이 쌍봉으로 마을 전

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쌍봉형태의 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두 곳 쌍둥이 마을의 가옥의 구조에서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두 마을의 가옥의 방향이 쌍봉산을 향하여 배치되어 있고, 집의 대문 또한 쌍봉산을 바라보고 있어, 집의 대문과 쌍봉산이 같은방향에 놓여 있는 가옥에서 쌍둥이 출산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충남 아산의 산동마을의 삼일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체 1,440세대 아파트 입주민 중 1997년 입주를 시작하고 2006년 전반기까지 9년 동안 42쌍의 쌍둥이가 출산되었다. 입주민의 전출입이 잦은 편이어서 아파트 주민의 출산횟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파트의 입주가 1997년 이후 시작된 점과 현재 젊은 부부들의 전 출입이 잦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촌마을의 쌍둥이 출산빈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쌍둥이 마을은 외국의 경우 터키와 나이지리아 남부에 위치한 마을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은 19회의 쌍둥이 가 태어난 곳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두 곳과 함께 쌍둥이마을로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쌍둥이마을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쌍둥이 마을의 지리적 특징은 쌍봉형태의 조산과 또 다른 쌍봉산이 있었다는 것이다.

두 곳 모두 쌍봉이 잘 보이는 마을에서 쌍둥이가 출산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쌍봉산을 바라보는 대문의 방향을 둔 가옥에서 쌍둥이 출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장수마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통적인 장수고장으로 유명한 전남 구례의 백운천마을과 경기도 남양주시의 안골마을을 직접 현장 답사하여 고을의 유래와 지세, 생활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장수의 원인과 지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장수마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인 장수도로 판단된 ‘자연부락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 비율이 30%이상인 마을’을 장수마을로 보고 2곳의 표본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의 장수마을의 지표가 되는 장수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19개마을이 전국에 포진하고 있으며, 그 중 전남지역에 약 21%에 해당되는 25개 마을이 장수마을로 지정되었다. 대표적으로 담양, 함평, 영광, 곡성, 보성, 구례, 진도 등이 그곳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구례군에 장수마을이 집중되어있는데, 의료시설이나 노인 여가시설, 복지시설 등이 부족한 전남지역에서 장수마을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지역의 환경요인이 인간의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마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84명으로 전체 주민 280명 중의 30%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백운천마을과 다른 점은 인구의 구성인데, 백운천마을의 경우 젊은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 마을을 구성하는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50%이상이 되는데 비해, 안골마을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30%이며,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인지 20~30대가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세대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백운천 마을의 입지를 살펴보면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토지가 비옥하였고, 지세가 급하여 지기가 왕성치 못한 곳이다. 집의 좌향은 대부분 동향과 북향을 이루고 있었는데 남향을 선호하는 한국에서 크게 선호되지 않는 동향과 북향을 이루고 있는 이곳 마을의 좌향은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진 길한 좌향으로 보이며, 백운내를 건너 위치한 안산이 일자문성을 이루어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이룬다. 또한 사방을 둘러싼 높지 않은 산들과 좌우의 낮은 청룡과 백호가 남쪽의 세찬 바람을 막아주어 마을에 살풍이 불어오지 않는 점을 보아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가 모이는 살기 좋은 마을이라 판단하였다.

금대산 안쪽에 위치한 안골마을은 지역 내 산수가 수려하고 경관이 빼어나 뿐 아니라 산세가 삼태기를 얹어놓은 듯한 형상으로 거북이 모양을 하여 포근하다.

좌로는 청룡이, 우로는 백호가 마을을 감싸 안아 살풍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조용하니 형기적으로 보아 지세가 잘 짜여진 마을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수마을의 형성에는 사신사가 잘 짜여져 포근하고, 살풍을 걱정하지 않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제 2 절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수 또는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마을이 형성되는 원인에는 지리적 조건이나 특징이 풍수지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각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장수마을 또는 쌍둥이마을로 지정된 모든 마을을 탐문하고,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 등을 모두 비교 분석하여야 하지만 시간적 제한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쌍둥이마을이라 알려진 외국의 마을에서도 지리적 특징이 한국의 조사대상 지역에서 나타난 풍수지리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장수’라는 사회적 현상을 판단하는 지표를 인간의 나이에만 국한한 것은 의료 혜택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장수마을’ 또는 ‘장수’의 기준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시설의 발전, 사회의 발전, 기술의 발전 등 환경의 변화는 ‘장수’의 기준을 정하는데 비중을 두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수마을 또는 쌍둥이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지리적 특징이나 조건을 상대적인 비교와 해석을 통해 얻어낸 사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 기술된 쌍둥이마을이나 장수마을과 관련되는 지리적 지표, 즉 지리적인 제반요소의 공통분모 도출은 향후 장수마을을

다각도로 접근 분석해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학위논문

- 모종수, 풍수에 응용되는 기에 관한 연구 : 기풍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시익, 風水地理說 發生背景에 關한 分析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오인철, 풍수지리를 활용한 주거입지와 배치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은덕수, 풍수의 현대적 해석과 주거공간 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창행, 주거계획에 있어서의 풍수사상의 적용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우식, 하남 장용득 풍수지리 이론의 사례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학술지

- 김동찬, 풍수 형국론이 갖는 의미의 입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학회지 18(1), 2000
- 서홍관, 장수마을을 통해서 본 장수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의학, 2002
- 이영준, 풍수지리를 통해서 본 마을의 공간개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85
- 정광중, 장수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제조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제주학회지, 2003

3. 서적

강희중, 명당비결, 명당출판사, 2000
김광제, 신 풍수답사기, 지성문화사, 200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출판사, 1999
신영대, 풍수지리학원리, 경덕출판사, 2004
오세종, 일제의 풍수지리침략사, 2001
이명석, 명산의 혈을 찾아서, 도원미디어, 2004
이중환,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6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문화사, 2003
최창조, 풍수잡설, 모멘토, 2005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믿음사, 1989

4. 기타

박시익 교수의 풍수지리와 건축 (<http://www.feng-shui.pe.kr>)
(사) 전통풍수지리학회 (<http://www.poongsoojiji.org>)
(사) 대동풍수지리학회 (<http://www.21fengshui.com>)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 of Feng Shui in 'Twins' Village and Longevity Village

Kim, Hyung-Il

Major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illuminated the fundamental theory and the modern methods of family analysis in Feng Shui, looked for the character of Korean, and the effects to residence of human beings for important geographical features with the study of cases. Especially, I studied analysis of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wins' village which has 15 times twins birthrate that the whole country does and the characteristic of Feng Shui in longevity villages. I made this paper through the interview and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in the areas, and so on. I chose Jungchon village at Yeu-su in Jeon nam province and Sandong village at Asan in Chungnam province on the areas for research. There I looked for the location of the village being effected by the birthrate of twins' village. Also I chose Baekunchun at Gurae in Jeon nam province and Angol at Namyangju in Gyunggi province in the area for the research for longevity villages. I looked for the relation with the cause for longevity and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survey of the field. The probability of the birthrate of twins is generally 0.5 %. It is one baby out of 150 to 200

babies. But I recognized that the birthrate of Jungchon and Sandong village are 15 times higher than other places in Korea. This result seems surreal because the possibility of having 38 twins in the only one place is almost zero. We could also find twins' villages in Turkey and the South of Nigeria. Nineteen twins were born there. These villages are known for twins' village like the above cases of Korea that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of this study, I assumed that such a phenomenon could be related to general factors like lifestyle and eating habits or genetic factors. However, I confirmed this phenomenon is not related to any of those. Ultimately, I found out that Jungchon and Sangdong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In front of two villages, they have two mountains one is closer and another is further but they are located in a row so that makes a mountain shape like twins. And two villages share another feature that they have another shape of twin mountains and I also found out a common feature in the structure of the house they live and confirm who has the house which front doors head to twin mountains, there are more possibilities. First, to observe Feng Shui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longevity villages, I have chosen two areas for data gathering based on longevity grade. I've defined the longevity village as village where more than 30% of seniors with 65 years age are 80 years old or more. There are longevity villages in Korea. Especially, there are 25 villages in Jeon nam province. The number of villages even takes 21 % of Jeon nam. For example, Damyang, Hampyung, Yunggoang, Goksung, Bosung, Gurae, Jindo, etc. Especially, a lot of longevity villages are in Gurae. These areas has not civilized enough to have hospitals or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 recognized that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have more effect on longevity than artificial factors like hospitals. Baekunchun is not a broad area, but has fertile soil and steep slopes makes spirit of the earth not vigorous. The direction of the house

faces east or north which most of Korean don't prefer those direction of housing. So I made a conclusion that unusual housing must be fit with their natural condition so that makes people live happily and healthy. I judged the village had a nice place to live, because the four directions is surrounded by the low mountains, protected the wind of north by a blue dragon and a white tiger, and intercept snow wind very well. Angol villagers tend to return their home at the old age. They lived happily with the mountains and rivers. There were 84 seniors with ages of 65 or more and it's 30% of town's total 280 people. They were also healthy enough to work.

In the population rate, Angol and Baekunchun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case of Baekunchun, 65 years above living at the outland was 50 % there. Then Angol was 30% living in near suburb of Seoul. Angol had the balance of generation, living with 20s-30s because of the good geographic condition.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limits. This paper is to propose how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r characteristics are feng suil causes for villages where great numbers of twins born or longevity.

1. I have not researched all longevity villages or twins' villages to judge correctly the results of study. So I have not researched en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objective circumstance and condition.
2. In case of foreign twins' villages for geography, I could not research same characteristic with Korea.
3. We must recognize that social longevity is not depending on the age only, so we need to research Feng Shui under same condition like making fixing factors etc. In the result, I get the geographic circumstance through the relative comparison analysis for the formation of longevity villages or twins's villages, I judge that deduction of common denominator of the

essence of the geographic condition of longevity villages has a great significance in study of several approach.